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MAY 26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2 1983년 5월2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May 26, 1983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코너·스토아 경영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예상

일요영업 자유화 내년 실현?

84년 7·8월 시험적으로 하오1시부터 6시까지 수퍼마켓 오픈

코너스토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일요영업자유화가 84년도에는 실시될 전망이 짙다.

24일 메트로 토론토 시의회 법사·면허위원회는 내년 7,8월 2개월간을 시험기간으로 삼아 하오1시부터 6시까지 큰 백화점·수퍼마캣 등 상점을 오픈키로 한다는 노스·욕 시장 멜·래스트맨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폴·갓프리 메트로시의장은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갖고 온타리오주정부 담당관리들과 협의할 예정이며, 주의회가 동의할 경우 다시 메트로 시의회 집행위의 검토를 거쳐 메트로시의회가 최종승인여부를 결정, 발효된다.

래스트맨 노스욕시장은 일요영업 제안이유로 토론토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산업을 촉진함은 물론 여름동안 학생들의 직장을 늘린다는 것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이 제안의 통과에 반대한 유일한 멤버인 토론토 시의원 토니·오도노휴씨는 일요영업이 많은 시민의 생활패턴을 바꿀 것이며, 특히 코너·스토어 경영자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트로·토론토는 내년 2개월간의 시험기간동안 성과를 봐서 일요영업을 확대·영구화 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갓프리 메트로시의장은 84년은 온타리오주 탄생 200주년이자 토론토시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이므로 7,8월 2개월간보다는 84년 전체를 일요영업시험기간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돈을 쓰는데 일요일에 상점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관광객들이 돈을 뿌릴 기회를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金泳三씨 측근 6명자택 연금

"김씨 단식투쟁지지"6人委모임 앞서

상당수人士도 함께

(서울-AP) 김영삼전 신민당총재의 지지자들이 자택연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소식통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16일과 18일 민주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김씨를 후원하기위해 조직된 6인위원회 회원들이 23일 회합을 갖기로 했으나 전원자택을 떠나지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6인위원회에 속하지않은 상당수의 인사들도 자택연금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전 신민당원들이 주축이된 6인위원회는 지난 주말 회합을 갖고 김씨문제를 논의하기위해 김상협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추락참화의 현장—프랑크푸르트 근교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캐나다공군소속 F-104전투기 추락참화현장. 한부부와 어린이가 불에 타 엉겨있다. 추락비행기는 공중곡예쇼를 하던 중이었다. 〈프랑크푸르트-AP〉

『김자경자선음악회』오늘밤 8시

모국맹인 개안수술비 모금행사

모국맹인의 개안수술비 모금을 위해 온타리오한인 맹인후원회 주최로 열리는 김자경 자선음악회가 오늘저녁 8시부터 토론토대학내의 월터·홀(Walter Hall)에서 열린다.

토론토한국일보, 오타와대사관, 이화여대동창회등 3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날 음악회에서 한국의 소프라노 프리마돈나 김자경교수는 현제명곡 「고향생각」등 우리귀에 익은 가곡 12곡과 김두환곡 「미선한 목자」등 성가 6곡을 부른다.

이번 자선음악회의 좌석은 490석이며 입장료는 1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맹인후원회 김홍회장은 23일현재 발매티켓의 90%가 팔렸다고 말하면서 남은 부분은 현장에서도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이어 "티켓은 주로 교회등에서 대다수가 팔렸다"면서 "티켓가격이 다소 비싼듯 하지만 이돈으로 모국의 맹인이 광명을 되찾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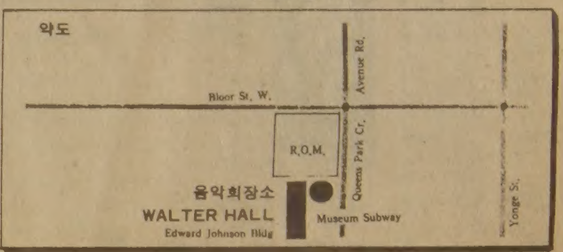
토론토교민 심홍씨의 모친이기도한 김교수는 금년2월 이화대학 음대에서 은퇴하기 까지 수많은 자선음악회를 가졌지만 이번 토론토음악회가 맹인개안수술비 마련이라는 점에서 가장 의의가 깊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맹인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5만명의 맹인이 있으며 이들중 4만명은 개안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독지가의 자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4만명은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극빈자로서 한국안과의사협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개안수술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맹인으로서 이들은 수술에 드는 경비 300달러만 내면 즉시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다.

80년도에 설립, 현재 회원 70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맹인후원회는 지금까지 14명의 맹인에게 개안수술로 광명을 되찾게 해주었고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다.

공연장소인 월터·홀(80 Queens Park Crescent)은 블루어와 애비뉴 남서쪽 코너인 로열·온타리오·뮤지움(Royal Ontario Museum)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드워드·존슨·빌딩내에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남북지하철의 뮤지움 지하철역에서 내려 서쪽으로 나오면 된다.



북한 김정일 중공방문설

(북경) 북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당서기는 가까운 장래에 북경을 방문, 중공지도자와 회담할 것이라고 북경의 외교소식통이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은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을 에워싼 한국측의 중공측에 대한 직접교섭으로 중공·북한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 김정일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콧츠의원 재선

한·카위원 친선협회 캐나다측 의장

(오타와) 한·카의원친선협회의 캐나다측 의원들은 24일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진보보수당 소속인 로버트·콧츠(Robert Coates)의원을 캐나다측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35명의 캐나다멤버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콧츠의장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중인 한국측 의장인 봉두완의원도 옵서버로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장·마샹(Jean Marchand)상원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카의원친선협회」가 양국간의 우의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의원으로서 연회비만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의원친선협회의 캐나다측 의원수는 현재 99명이다.

한·중공 테렉스회로 설치키로

—일본신문들 보도—

(도꾜23일=연합)한국과 중공은 앞으로 양국간의 비상사태에 대비, 신속한 통화를 위해 일본의 국제전신전화공사에 텔렉스 회로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일본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이같은 한·중공간의 합의는 납치여객기를 둘러싸고 서울에서 있은 양국간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같은 핫·라인설치는 한·중공간의 관계개선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한편, 한국 외무부의 한 관리는 한국과 중공이 텔렉스회로를 설치키로 합의했다는 일본신문의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현영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한국화장품 대리점
ROLEX
토론토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해숙제일제
오메가시계 15%~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GRAND OPENING
특별세일
특별세일기간
5월18일 ~6월4일

50mm Bristle Brush 1/2 Price $1.49
페인트롤러셀 $2.59 190mL
각종유명페인트 20% ~50% OFF
1/2 OFF SPECIAL
Para LATEX FLAT PAINT 4L $6.95
•무료견적•
Sun Paint & Wallpaper
619 McCowan Rd. and Lawrence Ave. ☎438-6965
영업시간 : 오전8시~오후8시(월 ~ 목)
오전8시~오후9시(금)
오전8시~오후6시(토)
대표 · 이광순

비데오 게임 머신
가게를 경영하시며 비데오게임 머쉰을 소유하신분들께 희소식을 알립니다.
본사에서는 종전의 5할제에서, 6할제로 이익을 여러분께 드리며 가장 이윤이 높고 인기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 친절하게 봉사하겠읍니다.
□즉시 수리
□새 기계 (NEW MODEL) 항상 보유

☎924-5597
대표 박 용

당뇨병치료에 희소식

특수의약품 「사이클노스포라인」효과 커

(온타리오주 런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된 장기관의 거부반응을 막는데 쓰이는 스위스제 특수의약품인 사이클로스포라인(Cyclosporine)이 당뇨병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임상실험 발표가 나와 학계에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런던의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당국은 사이클로스포라인을 투여받은 7명의 당뇨병환자중 3명은 더이상 인슐린이 필요없을 만큼 완쾌되었으며 나머지 4명도 인슈린 투여량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7명은 연령이 10세에서 26세까지인 남성5명과 여성2명이며 이 병원에서 당뇨병치료를 받은지 40일 이내의 환자들이다.

싸이클로스포라인은 이식기관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특수세포인 티·림포사이테스(T-lymphocytes)에 직접 영향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티·림포사이테스가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당뇨병은 면역적용이 제대로 안되는 사람들의 인체내 인슐린 제조기관이 티·림포사이테스의 침입을 받아 발병되며 인슐린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병원 연구팀은 사이클로스포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당뇨병치료가 계속 성공을 거둘 경우 현재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혈당량 조절로 그치는 인슐린 주사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간편한 당뇨병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당뇨병 치유책 연구팀은 런던의 웨스턴·온타리오대학 의과대 교수인 칼빈·스틸러박사와 안드레아스·로파시스, 존·두프레, 폴·커윈, 버나드·울프씨 등 8명의 캐네디언 의사들이다.

"캐나다와 개구리경기 갖자"

미국 개구리학교 사육사 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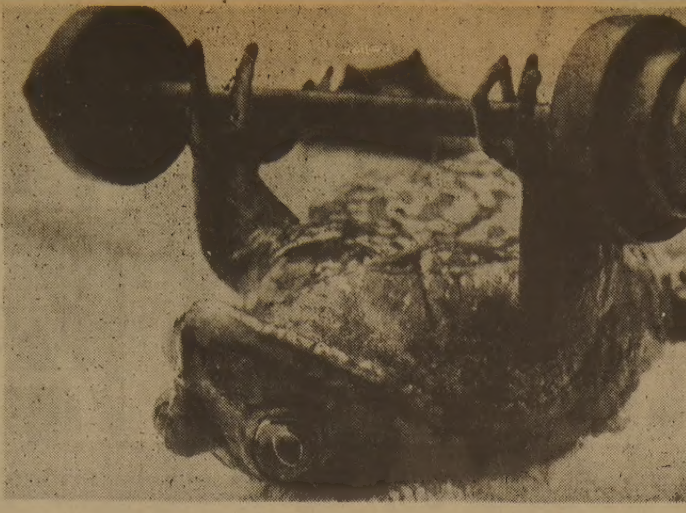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 소재한 개구리사육학교의 점핑후로그(Jumping Frog) 사육사인 빌·스티드씨는 미국산 개구리와 캐나다산 개구리와의 경기를 벌이자고 최근 제의했다.

10년이상 개구리사육을 담당해온 스티드씨는 그간 「젤리빈(Jelly Bean)」으로 불리는 레이건대통령의 점핑개구리, 인기여가수 돌리·파튼의 「돌리두(Dolly Do)」, 자니·캐쉬의 「수(Sue)」등 유명인의 개구리를 사육했다.

이 학교를 수료한 개구리는 750마리가 넘으며 매학기 50마리정도를 사육한다. 수험료는 6주코스에 약150달러.

이 학교에는 개구리를 위한 사우나, 마사지, 비누거품목욕, 미용체조, 수영코스를 비롯한 240시간의 심리연구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할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작년도 각종 컨테스트에 이 학교출신 개구리가 12회이상 우승했다.



◆스티드씨가 사육하는 개구리가 역도로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

...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374건보다 27% 줄어들었다.

사고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외출을 삼가하는 경향, 개솔린 가격의 폭등,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한 보행증가 및 TTC이용등이라고 경찰당국은 밝혔다.

현재 토론토내 등록차량은 약200만대에 달한다.

세이, 음악이론등의 과목이 추가된다.

한편 씨알학교는 필요하지 않은 장난감을 가진 가정의 장난감 기증을 원하고 있다. 기증희망자는 449-2986(여정자 선생)로 연락하도록.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0>

누가 惡魔인가 ①

드디어 물건을 손에 "그놈을… 해치우라"

대형창문에 커튼이 쳐졌다. 방안은 금방 어두워졌다. 방안에 불이 들어왔다. 실내는 넓었다. 호화 아파트의거실이었다. 바닥에는 고급양탄자가 깔려있었다.

실오라기하나 걸치지 않은 전나의 여인이 부엌쪽에서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쟁반 위에는 양주가 놓여져 있었다.

거실의 푹신한 소파위에는 다섯 사나이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을 보고 여자가 미소를 던졌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목석같이 반응이 없는 얼굴들이었다.

여인은 춤추듯이 다가왔다. 하체가 좌우로 흔들렸다. 그녀는 일부러 크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쟁반을 탁자위에 내려놓고 남자들 앞에 잔을 하나씩 놓는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탐스러운 젖가슴이 도발적으로 흔들린다.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다. 남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꿈꾸듯풀려있었다.

얼음덩어리를 잔속에 넣고 술을 따른 다음 그녀는 한옆에 허리를 꼬면서 앉았다. 엉덩이가 좌우로넓게 퍼졌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육체였다. 풍성한 머리채를 한데 모아 왼쪽 어깨앞으로 쏟아내린다.

『자, 들지.』

코가 유난히도 납작하게 가라앉은 사나이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를 따라 다른 네사나이들도 술잔을 들었다.

납작코가 여인을 끌어안았다. 왼손을 그녀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젖가슴을 움켜잡는다.

『근사한 년이야.』

중국말이었다.

여인이 그의 품속을 더듬었다.

납작코가 입을 열었다.

『본부에서 전화가 왔었지. 제5의 사나이가 물건을 손에 넣었다는거야. 우리로서는 체면이 없게 됐어.』

그는 손을 밑으로 내려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어떻게 그걸 손에 넣었지요?』

콧수염을 기른 사나이가 물었다. 역시 중국말이었다.

『모두 죽였어. 수지까지 싹죽이고 물건을 탈취해갔어. 수사기관에서는 쉬쉬하고 있어. 하지만 정확한 정보야.』

『대단한 놈이군요.』

『대단하다마다.』

『그놈은 지금 어디있읍니까?』

안경낀 사나이가 중국말로 물었다.

『몰라. 아직 연락이 없어. 보스는 여기서 물건을 받으라는거야. 그리고 놈을 처치하라고 했어. 그런데 그놈한테서 연락이 없으니 말이야.』

『경찰에 체포되면 야단이군요.』

말상같이 생긴 사나이가 중국말로 말했다.

『나도 그점을 걱정하고 있어. 전수사기관이 동원되어 놈을 찾고 있어. 놈이 경찰에 체포되는건 상관없지만 물건을 잃을까봐 걱정이야. 경찰보다 먼저 우리가 놈을 찾아내야 해. 시간을 다투는 일이야.』

그의 손이 여인의 두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朴 男 그림

매연감별기 불량판명

허니웰사 일부모델…이미 회수시작

미국 소비자생산품안전관리위원회(CPSC)는 24일 허니웰(Honeywell)회사가 생산판매한 가정용 매연감별장치(Smoke Detectors)의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될 모델은 76년1월부터 78년5월사이에 제작된 TC89C형, TC89B형이며 캐나다에서만도 35,000개 이상이 판매되었다.

이 장치는 매연(오븐연기, 촛불연기등에도 작동하게 되어 있음)정도에 따라 붙어있는 경보기가 울려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발견된 결함은 밧데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되어있는 마운트의 회로가 매연증가시 접촉불량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CPSC가 밝혔다.

허니웰토론토지사의 데니스 히니씨는 해당 모델의 소유자는 누구나 새것으로 교부해 준다고 밝혔다.

전화문의는 293-9100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교통사고율 하락

메트로·토론토

금년들어 메트로·토론토내의 교통사고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경찰당국이 19일 발표했다.

메트로경찰당국에 의하면 금년 첫5개월간 교통사고건수는 16,626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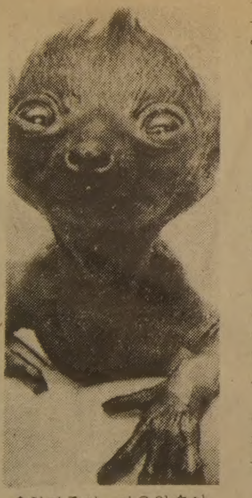
"실직해결은 요원"

경제연구소 연방예산 논평

(오타와) 연방정부가 지난 4월19일 발표된 예산에서 캐나다경제의 답보상태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24일 C.O. 호위(Howe)경제연구소가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분석지 코멘터리(Commentary)의 최근호에서 연방정부는 지난번 예산에서 어느만큼의 고용이 창출될 것인지 언급하기를 "교묘히 회피" 했으며, 그 예산에서 밝힌대로 86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9% 이상으로 남아있을 경우 특히 젊은이들의 직업전망은 어둡다고 논평했다.

이 연구소는 또 경제침체를 낳은 많은 요인들이 수년간 쌓인 고질적인 것이므로 그 요인들을 단숨에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희귀종인 여우원숭이 새끼.

여우원숭이 실종

E.T.별명붙은 휘귀종

(로스안젤레스) 희귀짐승으로 화제를 뿌렸던 여우원숭이(Lemur)가 LA동물원에서 23일 실종되었다.

새끼고양이 크기의 이 진귀원숭이는 어미의 젖을 먹지 않으면 이틀안에 죽을 것이라고 담당 수의사인 로라·라마르카씨가 밝혔다.

지난 4월16일 태어난 이 원숭이는 짓궂은 사진기자가 E.T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실종된 새끼의 부모와 또다른 2마리새끼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7월4일 개강

데이·케어 신설한 씨알한국인학교

금년에 처음으로 3~4세 어린이를 위한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신설, 국민학교, 중학교과정등 3부로 나뉘인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회자)의 여름학교가 7월4일 개강한다.

학교장소는 250 Brookdale Ave.의 존·웬리스 스쿨(John Wanless School), 신청처는 150 Madison Ave. M5R 2S5, 신청마감은 6월15일까지이다.

7월4일부터 8월26일까지 8주간 주50달러인 데이케어는 영어교사 1명, 한국인 교사 3명이 32명의 어린이를 보살피게 된다.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태권도, 수영등을 즐길 수 있는 국민학교프로그램은 6주간 학생 1명 180달러, (한집에 두학생 350달러, 셋 500달러)이며, 매금요일에는 야외활동이 있으며 스쿨버스도 운영된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콤퓨터, 불어회화, 영어에 ...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제인·폰다 미용체조 방영

페이—TV 수퍼채널

배우 제인·폰다의 미용체조 프로그램이 페이TV 수퍼체널(Super channel)을 통해 오는 7월5일부터 방영된다.

매력적인 몸매와 연기력으로 개성있는 배우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제인·폰다는 스스로 개발한 미용체조법을 실은 책과 비데오-카셋은 물론 미용학교까지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제인·폰다 미용체조 프로그램은 초보자용 30분짜리와 중급용 60분짜리 두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의 집중은 역시 몸에 착달라붙는 체조복 차림의 제인·폰다의 자태.

40대인 그녀는 현재 남편인 정치가 톰·헤이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두번째 남편인 프랑스 영화감독 로제·바딤과의 사이에 난 딸등 두 자녀의 어머니이다.

수퍼·체널은 그녀의 미용체조 프로그램을 수백차례 방영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들로부터 지루하다는 불평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월부터 수퍼·채널로 자신의 마용체조법을 강의할 배우 제인·폰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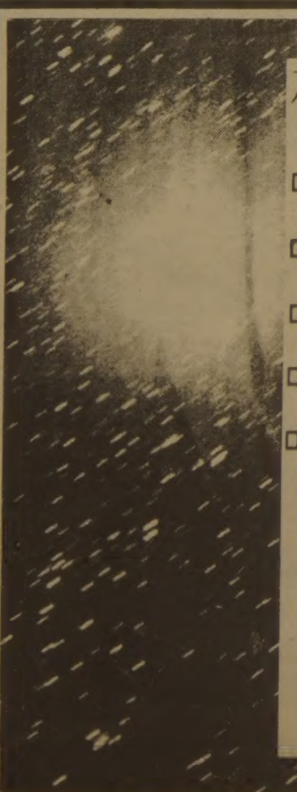
테잎 2,600여개
보유

새로운 연속극 입하!

□새댁 □다녀왔읍니다 □청춘행진곡
□안개 □엄마는 바빠요 □추동궁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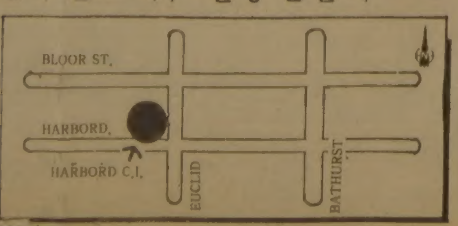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532-0210 손병헌



제2회 청소년 예술제

□일시·1983년5월28일(토) 오후7시30분
□장소·HARBORD 고등학교
□가격: $5(균일)
□주최·KUSA
□후원·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한국일보사, 민중신문사



젊음의 열기와 감미로운 멜로디, 웃음의 광장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위의 세 어린이 최창호(ANDREW), 진호(LINDSAY), 원호(ALEX)와 성정옥씨(MRS. 최)를 보시는 분은 ☎360~8590으로 연락 주시면 후사 하겠읍니다.
(법정명령 NO D98008/82)에 의해 찾고 있읍니다.

축구, 인기 스포츠로 부상중

캐나다축구협회 등록선수 25만명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고 가장 많은 선수층과 관중을 확보하고 있는 축구(Soccer)가 캐나다에서 서서히 인기 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간 북미에서는 야구, 하키, 농구, 풋볼등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다만 전통적인 스포츠종목으로만 명목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프로축구팀의 창단과 리그결성, 활기 띤 광고에 의해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축구는 국민학교의 체육시간에 구기종목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스포츠종목보다도 널리,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하키나 풋볼등은 장비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고 농구는 실내코트가 필요하나 축구는 일정규모의 땅이나 잔디, 포스트와 볼만 준비하면 여럿이 함께 참여, 즐길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넓은 공원과 운동장이 산재한 캐나다에서 축구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 크다.

캐나다축구협회(CSA)에는 현재 약25만명의 선수등록이 되어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82년말 현재 88,784명의 청소년과 19,395명의 성인선수가 등록되어 타주보다 가장 많은 경기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축구인등록은 30년전에는 4,462명이었던 것이 연평균 42%의 증가를 기록, 현재는 845%이상의 선수증가를 보였다.

관객면에서 작년도 월드컵경기 TV실황은 전국적으로 590만명이 시청했는데 이는 수퍼볼82의 453만명, 월드시리즈의 420만, 81년도 그레이·컵 575만명보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외에도 캐나다선수들의 질과 경기내용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축구기술과 게임운영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선수층의 기량이 향상되었으며 현재 캐나다대표팀에는 온타리오출신 선수가 11명 포함돼 있다.

최근 캐나다에는 남자팀뿐 아니라 소녀팀과 여성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OSA에는 15,000여명의 여성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82년도에는 최초로 전국여성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북미축구리그(NASL) 소속 12개팀중 캐나다팀은 3개팀이며 이중 토론토 블리자드(Blizzard)팀은 상위팀으로 인기가 상승, 게임당 평균 8,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캐나다 축구관계자는 앞으로 자체로 6개팀을 확보, 캐네디언 프로축구리그(CPSL)를 5월중에 결성, 개최할 예정이다.

NASL에는 현재 240명의 직업선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그중 18%가 캐나다출신이다.

토론토의 축구보급자인 존·반더코크씨는 소수이민그룹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축구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청소년들도 합류, 계속 번창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싼 비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구가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은 호응을 보여 최근에는 여성리그전도 열리고 있다.(스카보로 유나이티드 시즌팀의 경기연습)

『나라야마의 발라드』

칸느영화제 최고상 수상

칸느영화제 최고상인 금종려수상은 19일 일본의 이마무라·쇼헤이감독 작품인 〈나라야마의 발라드〉에게로 돌아갔다.

또한 특별심사상 (Special Jury Prize)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어린이 학대문제를 다룬 인도영화 Kharij와 영국 몬티·파이톤씨의 코메디 〈삶의 의미〉(The Meaning of Life)가 차지했다.

〈나라야마의 발라드〉는 고대 일본의 농촌에서 늙은이를 산에다 버리던 고려장을 소재로 한 내용으로, 인간의 구원은 잔인한 자연법칙에 순응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고려장 제도는 70살이 넘으면 산꼭대기로 올라가 죽음을 기다리도록 돼있다.

최우수 남우상은 스위스영화 마리오·리치의 죽음(클로드·고레타감독)에 주연한 지안·마리아·볼론테로 돌아갔고, 여우상은 서독의 하나·쉬굴라(Hanna Schygrlla)가 차지했다. 하나양은 이탈리아 마르코·페레리감독의 작품 〈피에라 이야기〉에서의 열연으로 수상한 것이다.

국제 비평가상은 헝가리 영화 〈Daniel Takes a Train〉, 신인 감독상은 역시 헝가리의 〈Princess〉가 차지했다.

◆칸느영화제 최고상 수상작인 〈나라야마의 발라드〉에 출연한 일본 여배우 스미코·사카모도양이 19일밤 시상식에서 기뻐하고 있다.

결혼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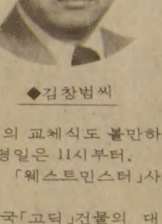
신랑 : 김인기군(김순옥여사 3남)
신부 : 김영미양(김경석씨 2녀)
일시 : 6월4일(토) 정오
장소 : 메시야한인교회 (1580 McCowan Rd)
주례 : 조창환목사
피로연 : 하오2시 만수궁 (3550 Victoria Park Ave)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금년에는 유럽여행을………영국편 ②

런던(LONDON) 도시전체가 역사적 관광명소

김창범(신세계여행사 대표)



◆김창범씨

인구 750만인 런던의 시가는 「템즈」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때 세계의 상업, 금융및 정치의 중심지였다.

1066년 「노르만디」의 「윌리암」공이 영국을 점령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즉위함으로써 역대왕이 이곳을 거성으로 삼았다.

이 도시는 역사상 두번 큰 재난을 당하였는데, 하나는 1665년의 「페스트」(흑사병)이고, 또 하나는 그 이듬해의 대화재였다. 그후로 목조건물이 폐지되고 벽돌과 돌로 된 오늘날의 런던이 출현했다.

런던시의 주요 관광명소는 다음과 같다.

1. 트라팔가(Trafalgar) 광장.

프랑스와 조국의 운명을 건 일대해전에서 「넬슨」제독이 이끄는 영국함대의 승리와 그의 장엄한 전사를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이 광장의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으며, 그 남단에 「넬슨」기념탑이 있고, 56미터 높이의 탑정상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서있다.

2. 국립미술관.

Trafalgar광장의 북쪽에 있으며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등 유럽회화의 대표작을 분류하여 진열하고 있는 세계적 미술관. 입장은 평일에는 아침10시부터 하오6시까지.

3. 「버킹햄」궁전.

Trafalgar광장에서 세인트·제임스공원을 왼편에 끼고 큰 몰(Mall)의 넓은 보도를 따라서 가면 마주치는 곳에 「버킹햄」궁전이 나온다.

길 오른편에는 「세인트·제임스」궁전이 있다. 4층높이의 정사각형 큰 건물로서 「빅토리아」여왕이래 왕궁으로 사용해 왔다. 궁전 앞 광장에는 「빅토리아」여왕 기념비가 높은 대리석 위에 놓여져 있고, 여러개의 조각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여왕이 궁전에 체재중에는 옥상에 영국황실을 상징하는 국왕기가 게양된다. 2차대전중 10여회에 걸쳐 폭격을 받았으나 오늘날 완전히 수리되었다.

여왕의 탄생일은 실제로 4월21일이나 공식적 행사는 6월에 거행되며 이곳에서 개최되는 연1회의 의장병 사열도 볼만 하다.

4. 위병교대.

「버킹햄」궁전 앞에서 행해지는 위병교대 의식은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있는 행사중의 하나로 매일아침 11시30분에 실시된다.

5. 세인트·제임스(St. James)궁전.

원래 12세기에 세워진 병원인데 「헨리」8세 이래 1837년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다. 「크롬웰」시대에 당시의 왕이었던 「찰스」1세가 1649년 이곳에서 끌려가 화이트·홀(White Hall)에서 참수형을 받았다고 한다.

6. 화이트·홀.

「템즈」강과 세인트·제임스공원사이에 끼어있는 「웨스트민스터」지역 일대를 호칭하며 많은 중앙관청과 「다우닝」가 10번지로 불리우는 수상관저도 이곳에 있다.

외관상 검소해 보이나 내부에는 방이 60개나 되는 호화저택이다.

여왕의 방위부대라고 호칭하는 기마부대 2개연대의 교체식도 볼만하다. 평일은 11시부터.

7. 「웨스트민스터」사원.

영국「고딕」건물의 대표로서 의사당과 함께 「런던」의 대표적 건물. 1065년 「색슨」족의 「에드워드」왕이 건립한 이래 대대로 국왕의 대관식이나 장례식등 역사적 행사가 거행되며 1953년의 「엘리자베스」2세의 대관식도 여기서 거행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헨리」3세가 13세기에 만든 것이다. 대관식의 왕좌, 「헨리」7세의 예배당, 영국공군 기념예배당을 비롯, 수많은 위인명사의 묘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중에는 정치가로서 「핏드」, 「디스레일리」, 「그랫스톤」, 학자로는 「다윈」, 「뉴톤」, 증기기관의 발명가 「왓트」, 시인과 예술가로서 「테니슨」을 비롯 「밀톤」, 「디킨스」, 「스캇트」, 「스펜서」, 「키프링」등의 묘가 있고 참관은 아침8시부터 하오6시까지, 여름철에는 7시까지 개방한다.

◆런던의 역사적 유물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연재소설〉

혼돈 ㉙

글 이태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정신이 좀 드세요?"

낯선 아주머니가 나의 손목을 잡으며 물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렁이를 잡으러 나갔다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가씨가 한국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족에게 연락도 못했읍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설명이 내 의문을 풀어주고 있었다.

"내가 쓰러져 있던 곳이 공원이었지요?"

"아니예요. 공원이 아니라 골프장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사람인줄도 몰랐어요. 헛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알았지요."

나는 눈을 감았다. 치욕의 순간순간이 또렷이 떠올랐다.

"가족을 불러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며 물었다.

"아니예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계속되던 대화가 끊기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럼 혼자 사시나 보지요?"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주머니는 딱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흘러 넘쳐 볼을 타고 내렸다.

"그러면 날이 아직 새지 않았으니 저희 집으로 가셨다 날이 새면 가세요."

한숨을 길게 쉬며 하는 아저씨의 말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진한 슬픔이 울컹울컹 목구멍을 치밀어 올라왔다.

"울지 마세요.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면 별의 별 일을 다 겪게 돼요."

젖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내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처량한 화음을 이루었다.

"피곤하실 텐데 이제 돌아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에 있다 아파트로 가겠어요."

내가 울음을 진정시키고 말할 때 아주머니도 눈을 훔치고 있었다.

눈을 감자 치욕의 순간순간이 또렷이……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두 분은 다 아시고 계신 모양이지요."

"병원에 와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염려말아요. 우리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여보, 우리가 여기 있으면 더 괴로울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는게 좋지 않겠어?"

내 눈치를 살핀 아저씨가 아주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성함과 전화번호를 주고 가세요. 제가 후에 찾아뵈올 수 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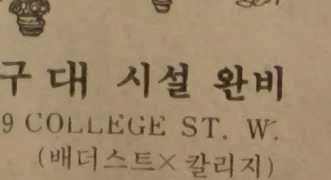
"아니야. 이런 일로는 서로 만나지 않는게 좋아요. 우리는 갈 테니까 이걸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요."

아주머니는 20불짜리를 내 손에 꼭 쥐어주고 아저씨와 함께 병실을 나갔다.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푼 고마움에 대한 눈물이었다. (계속)

한국인을 위한 희소식
Oriental Recreation Centre
신장개업 6월6일(월)

금번 저희는 한국식 당구대(6대 보유), 외국식 당구대및 비데오머신을 보유하고 COLLEGE(조지·브라운 학교옆)에 개업했읍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올림

★한국인의 당구대회 예약 환영
★특별봉사



한국식 당구대 시설 완비
549 COLLEGE ST. W.
924—5597 (배더스트× 칼리지)
영업시간 : 평 일·아침10시～밤 12:00
토·일·아침10시～새벽 1:00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 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성인잡지 확대 회의

별성과없어 다시모이기로

성인잡지판매[illegible]에 대한 경찰의 고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표들의 확대회의가 지난 5월18일(수)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Toronto Press Club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실협대표로는 차선겸회장과 이춘수 부이사장, 그리고 강공선 상담실장이 참석하였고, 주최자인 인권옹호위원회를 위시하여 경찰국, 이민국, 검찰청, 시민권담당판사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와 동시에 실협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태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 시의회에서 제정한 성인잡지 진열규제법에 따라서 모든 회원이 일정한 높이와 표지의 가림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와 관계없이 연방법인 형법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설물의 소지」혐의로 계속 입건하고 있다.

2)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회원들도 일반대중과 꼭같이 성인잡지에의 미성년자 접근을 원치 않고 있고, 한국인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버는데 눈이 어두운 민족이 아니다.

3) 문제는 왜 캐나다정부는 이러한 잡지의 수입을 허용하여 통관시키고 있으며, 왜 일선소매상점에 배달되기 전에 공급업자 선에서 근절하지 않는가?

4) 봉테기나 상자로 여타잡지들과 함께 상점에 내던지고 가버리는 수십종의 잡지류를 무슨 방법으로 일일이 선별해서 반환하는가?

5) 이름있는 공급업자를 거래하라고 하나 그들이 보급하는 잡지도 여전히 고발대상이 되고 있다.

6) OAC(일부 공급업자들의 자율적인 검열기관)를 거친 잡지의 취급을 권유하고 있으나 OAC검열여부를 무슨 방법으로 식별하는가?

7) 국가적인 차원에서 5~6개의 공급업자 선에서 검열을 실시하여 보급을 예방하는 것이 용이한가? 아니면 수천개의 소매상점에 풀어놓은 다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8) 이러한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 시민권 획득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일부변호사의 해석이 사실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전개한 결과,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가 바라던 핵심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검열기관설치는 이나라 헌법의 Civil Liberty개념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고 이의 신설은 정치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권한 밖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다만 시민권 획득에의 영향문제만은 형법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도 예를 들면 6개월이상의 징역형을 받은것과 같은 것이 아닌 경미한 선고(예 : $500 벌금형 정도)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었다. 다만 3년이라는 거주기간중 집행유예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유권적 해석을 얻었다.

참석자 일동이 소매상점의 애로를 이해는 하면서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여 「외설」여부에 대한 것은 결국 소매업자들이 판가름해야 하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최종적인 한가지 방안으로 인권옹호위원회의 주선으로 이번회의에서 제외되었던 거래공급업자대표들과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OAC와 같은 자율적인 검열기관을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구성하여 보급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협동조합 창립총회

6월9일 할리데이·인

대망의 협동조합 개설을 앞두고 이의 정관심의 통과를 위한 임시총회와 창립총회를 오는 6월9일(목) 오후6시 시내 Downtown Holiday Inn 2층에서 개최한다.

역사적인 모임에 모두 참석해서 조합의 탄생을 축원하고, 앞날의 발전을 [illegible] 주기 바란다.

『뎀스타』 빵회사에 항의

차회장 2주간 기한부 경고

지난 5월9일(월)부터 배달시스템을 「후랜차이스」로 바꿈으로써 일대혼란을 초래하여 회원상점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데 대하여 지난 24일 대표자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2주간의 경고기간을 부여하였다.

회사측에서도 지난 2주간의 혼선을 자인하고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KBA회원만을 위한 트럭 2대를 긴급 배치하고, 「스페시얼 델리버리」등으로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매상의 다과에 관계없이 주2회 배달은 용납할 수 없고, 최소한 3회이상의 배달을 지켜야 하며, 3회인 경우에는 주말의 매상을 감안하여 월, 목, 토로 해야 한다는 협회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100여건에 달하는 전화를 기초로 1)배달회수 2)배달시간 3)운전사의 오만 4)불충분한 빵공급 5)반품의 처리불이행 6)개점전 외부에의 방치 7)토요일배달 불이행등에 관한 문제들을 앞으로 2주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3공급업자를 선택하여 Account를 이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2주간의 경고기간중 「뎀스터」회사에는 KBA문제를 전담하는 책임자로 Rick Andrew(537-3233)를 결정하고 문제의 즉각해결에 임하기로 하였으므로 회원제위는 이전화를 이용해 주기 바라고,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협회상담실(533-8344)에 연락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받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한편 협회에서는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미 제3의 빵회사와 접촉을 시작하였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담소고〉

가게를 사랑하는 마음

강공선(상담실장)

가게숫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개인가게 뿐아니라 체인스토아, 수퍼마켓도 늘고 있다. 틈만 있으면 새로 꾸며서 늘고, 구직난으로 가게찾는 사람 많아 늘고, 부지런만하면 상전없이 돈벌 수 있어 늘고, 국내외의 유수한 연쇄점들이 뚫고 들어와 늘고…

따라서 자연히 경쟁이 심해져서 남보다 값을 낮추어도 보고, 영업시간을 연장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는 박해지고 일은 고되고, 불경기로 매상이 시원치 않으면 큰 가게를 찾게 되고, 한번 마음이 들뜨면 가게를 돌보기가 싫어지고,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팔보기 싫은 사람 많아지고, 상담실에서 전화받는 소리가 거만하게 들리고…

이쯤되면 가게꼴은 말이 아니다.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사는 집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솟아야 제대로 유지되듯이 가게도 애착심이 생겨야 윤기가 돌고 번성하게 된다. 더구나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는 가게를 내집같이 가꾸고, 상품들을 자식같이 손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손님도 늘고 마음도 안정되고, 따라서 돈도 벌리게 되는 것이다.

기왕에 작정한 일터가 못마땅하다고 하루 속히 떠나려고만 하지 말고, 밝은 면을 찾아내서 정들게 만들어보려는 마음씨와 노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기왕에 인연을 맺은 배우자가 못마땅하다고 갈아치울 생각부터 하지 말고, 밝은 면을 찾아 이해와 사랑으로 가꾸어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중충하고 지저분한 가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이 들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굳이 돈을 많이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담하고 산뜻한 색깔의 벽지나 페인트로 단장도 해보고, 천정의 조명을 늘여서 밝게도 해보고, 집안에서 가구를 옮기듯이 진열대를 바꾸어놓아 보기도 하고, 캐쉬레지스터나 캔디Rack의 위치를 옮겨보기도 하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놓아 보기도 하고… 아주 조그만 변동으로 권태감을 일신할 수가 있다. 늘 오는 손님들에게도 신선감을 주게 된다. 손님의 입에서 Pleasant라는 코멘트가 나오면 산가게로 보아 틀림 없다.

바쁘고 피곤한데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나 항상 위만 쳐다보지 말고, 가까운 자기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즐겁게 맞이하는 것이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원천이 된다는 천리를 강조하고 싶다.

일단 분위기를 명랑하고 신선하게 해놓은 다음에는 가장 효율적인 상품의 정돈과 분류가 따라야 할것이다.

손님의 구매와 관계가 없는 물품들은 일체 상점에서 제거하고 팔리지 않을 파손품은 대담하게 없애버려서 스토아의 어느 구석에 있는 상품도 팔 수 있는 것만으로 단정하게 정돈해 놓는다. 누가 그걸 모르느냐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한번 체크해 보면 예상외로 치워버릴 물건이 많을 것이다.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분류를 잘 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손님이 없는줄 알고 절대로 안팔린다. 어정쩡하면 근처의 수퍼마켓에 가면 쉽게 그 분류를 알 수 있다.

크기가 작고 값나가는 물건일수록 카운터 가까운 곳에 진열하여 도난을 줄인다.

가장 손님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무엇을 진열하고, 안 띄는 곳에는 어떤 상품을 놓을 것인지 결정한다.

허다한 원칙을 전부 나열할 수는 없으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품의 진열이 확정되면 가능한한 위치를 자주 바꾸지 않음으로써 고정손님이 장소를 익히게 하는 것도 유의할 사항중의 하나다.

가게의 단장과 상품의 정돈이 제대로 되고 주인이나 부인이 틈만 있으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닭털총채를 들고 다니게 되면 그 가게는 살아서 생명이 넘치고 있는 가게이고, 이구석 저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물건들이 산재해 있고, 전구가 몇개씩 끊어진 채로 벽이나 천정이 누렇게 바래 있는데도 책이나 들여다 보고 있으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매상은 늘기 다 틀린 가게이다.

옛말에 툇돌에 신발이 가즈런히 놓인 집에는 도둑이 못든다는 말과 같이 정돈이 철저히 되어있는 가게는 확실히 도둑도 조심하게 된다.

Convenience스토아의 수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체인을 가진 대회사들이 가장 효율적인 구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여 나날이 변천해가는 대중의 구매성향에 알맞도록 대처해 나가는 이시대에 구태의연하게 주저 앉아서 매상 안오르는 불평이나 하고, 옆가게보다 싸게나 팔아서 고객을 유치하려는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하루속히 버려야겠다.

더우기 항간에서는 큰 수퍼마켓들이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격심한 경쟁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느모로든지 담보상태로 잠자고 있는 점이 없는지, 가까운 자기주변에서부터 살펴보고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가게를 내집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는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천지가 개벽된다는 것을 알고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 보십시다.

K.B.A. 교환센타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물품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
(669-6438 Mr. 염)

▲Bulk Cabinet 6feet(Scoup Ice Cream Cabinet)구함
276-3266 김요현

▲Used Cash Register구함
421-5151 김용준

▲선반2개(길이 4" × 높이 6")
진열장1개(길이5" × 높이 4")팝니다.
531-7556 오후6시 이전
248-2636 오후6시 이후

▲잡지 Rack(4"넓이 × 6"높이)
Shelves(4"넓이 × 6"높이)팝니다.
669-6438 Mr. 염

▲Donut & Submarine장비(거의 새것) 급매.
Pop Cooler(Coca Cola 2 door), Milk Cooler(2 door), 진열장(5' × 4'), Submarine Cooler, Table, Chair, Coffee Warmer, Coffee Grinder, Meat Cutter등,
▲Ice Cream Freezer 팜(현재 사용중임)
8피트, 3 door(Universal Brand) 전화 633-0231 Mr. 윤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학벌 學閥·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임시총회 소집공고

본 협회 회칙 제7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같이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3년 6월9일(목) 오후6시
□장 소 • DOWNTOWN HOLIDAY INN
COMONWEALTH ROOM 2층)
89 CHESTNUT ST. TORONTO(토론토시청 북쪽)
□안 건 : 협동조합정관 심의통과

1983년 5월 일

실업인협회 협동조합(가칭)

발기총회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협동조합(가칭) 발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옵기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3년 6월9일(목) 오후8시
□장 소 • DOWNTOWN HOLIDAY INN
COMONWEALTH ROOM 2층)
89 CHESTNUT ST. TORONTO(토론토시청 북쪽)

1983년 5월 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 선 겸

日의 對北傀 제스처에

政府, 강력 對應

"亞阿法律會議 北傀대표政治활동 묵과못해"

"遺憾의 뜻" 訓令 긴급전달

정부는 최근 日本정부가 北韓에 대해 취한 정치적제스처는 韓半島평화는물론 韓日우호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분석, 이에 대한 일련의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우선 아시아·아프리카 法律자문위원회 참석차 일본에 入國한 북한대표 李俊玉이 회의목적이외에 정치활동을 하고있는 점을重視, 일본측에 강경하게 항의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李가 21일字 아사히(朝日)신문에 회견기사를통해 북한의 상투적인 정치선전을한것은 入國목적을 위반한행위로판단, 李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한 일본측에駐日대사관을통해 유감의뜻을 전하도록 긴급훈령을 내리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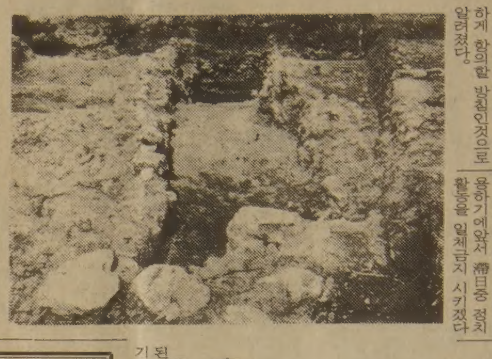
한소식통은 21일『일본 정부가亞阿법률회의에참석한 북한대표단의 入國을허용하기에앞서 滯日중 정치활동을 일체금지 시키겠다는점을 우리측에약속했다』면서『李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인 발언을하도록 방치한것은 일본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깨뜨린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우리정부는 李의 일본내 활동을 그동안 예의注視해왔다』면서『일본정부관계자가 李와 접촉한 사실등 몇가지점에서일본의 對북한자세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지만 일본측의 해명을 듣고 선의로 해석했으나 李가 일본매스컴을 이용하여 정치선전을 한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처사』라고말해일본에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중임을 비쳤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일본측이 中共여객기피납사건의 처리과정에서 韓·中共양측으로부터 소외당했다는 反射작용으로 북한에 대해 접근자세를 보이는것 같다』면서『일본측의 이같은 태도는 우리나라의선린우방으로서 취해야할 태도는 결코아니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일본이 南北대화를 주선하겠다면서 북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것은 북한으로하여금 우리와의 대화를 더욱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東京=聯】駐日한국대사관은 21일 아시아·아프리카법률위에 참석차 訪日한 北傀 李俊玉(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부소장)이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 인터뷰를 가진것과 관련, 『이는 명백한 입국목적외의 활동을한것으로 있을수 없는일』이라는 내용의 유감의뜻을 일본외무성에 전달했다.



◇전북高敞郡雅山면 수몰지구 지표조사결과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고려청자 가마터.

가장오랜 青磁가마터 나왔다

高敞 雅山面서

10~11세기 高麗初추정

青磁발생史 고칠 貴重자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기 10세기말~11세기초의 高麗青磁가마터가 21일 전북高敞郡雅山面龍溪里、雲谷里일대에서 발굴됐다。

圓光大 馬韓 百濟문화연구소는 수몰될 예정인 雅山面일대를 조사하다 40m×80m에걸쳐쌓여있는 대규모청자퇴적층주변에서 길이12·5m、폭0·9~1·1m의청자가마를발견하는 뜻밖의 큰성과를올렸다。

조사단은 청자조각들과함께나온 기와에서「大平壬戌」이란 글자가 적혀있는것을 확인、고려顯宗때인 서기1022년전후에 만든 가마인듯 밝혀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오래된 高麗青磁가마터는 1981년8월 전남康津郡大口面龍雲里에서 발견된 12세기초의 것이었으나 이번에나온 가마는 그보다 1백년이 빠르다。

金三龍조사단장은 이雅山고려청자가마가 고려청자의 발상무렵가마로서 우리나라청자의 신비를 풀어줄 결정적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발굴조사단은 가마터에서 초기청자(越州청자)의 대표적인 器形인 해무리무늬(日暈文)와 굽이높고 벌어진음각蓮瓣文盒、입이큰병、참외모양의 주전자、목긴 항아리、접시등의다양한문양의 청자를 찾아냈는데 이출토자기들은 회백색의 胎土위에 엷은 녹청、灰靑、담청색등의釉色을 띠고있다。

청자 가마터가 발견된자리는 대규모 청자퇴적층의 窯址群으로 많은 청자조각과 토기조각이 섞여 쌓여있다。

고창 아산면 일대는 선사시대의 수백기 고인돌(支石墓群)과 함께 백제토기요지、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의토기、청자요지、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요지가 밀집된 곳이다。

金三龍조사단장은이청자토기편은 전남康津 청자요지출토편과 비교할경우 고려시대초기(10세기~11세기전반)에 제작되었던것으로보인다고밝히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1050년께부터시작된것으로 보았던 고려청자발생사를 뒤집을만한자료라고말했다。

社會漫評

검토中…

全대통령, 12회少年體典치사

"쑥쑥자라 올림픽主役 돼라"

굳센精神力 힘찬體力 함께 길러야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少年體典에 입장하는 선수단에게 박수를 보내고있다.

【全州=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1일『소년소녀 여러분은 스스로 선진국민으로서의 品性과 능력을길러 나가야만 하겠다』고말하고『그러기위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건전하게 다듬고 몸을 튼튼하게가꾸는데 힘써 나가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全州공설운동장에서 개막된 제12회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소년體典을 더욱 발전시켜 오는 86년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대회에서 세계 여러나라의청소년들과 당당히 어깨를겨루어 주최국의 젊은이다운 패기와 굳센 체력을 떨쳐 보일영광의 주인공들을 탄생시키는 요람이되도록 다함께 정성을 기울여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체육은 굳센정신력과 힘찬 체력을함께 길러나가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제,『여러분과 같은나이에 이러한정신적인 힘과 마음가짐을 훌륭히체득해 놓으면 후일에 어른이 된뒤에도 반드시 값지고 보람있는 일을 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心身의 건강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判定불복 暴力 嚴斷

體典관계자들과 午餐

【全州】全斗煥대통령은『소년體典기간동안 선수단의 임원들이 심판의 판정에 不服, 폭력을 행사하는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경우에는 모두 법에따라 엄히 처리하도록하라』고 관계관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소년體典개회식이 끝난뒤 각계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는자리에서 매년 體典이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질서와규칙을 잘준수하는 가운데진행돼왔으나 아직도 不美스러운일이 몇번씩 나오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全대통령은『나라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이 겨루는 신성한 운동경기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어른인 임원들이 심판에 不服해서 싸우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강조하면서 오찬에참석한 각市·道지사들이 책임지고 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선수단에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개회식시간은 될수 있는대로 대폭 줄여 소년·소녀선수들이 피곤하지 않도록하라고 관계관에게 당부했다.

複合營農으로 農民소득증대

金堤郡등 시찰

【金堤】全斗煥대통령은 釋迦誕日로 휴일인 20일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지방시찰에 나서 忠南公州郡에 있는 東鶴寺와 全北金堤군청을 돌아보았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金堤군청에서 崔奉圭군수로부터 郡政보고를받은뒤『정부는 농어민소득을 도시근로자보다 높이는 방안을계속 연구, 추진중』이라고 밝히고『전국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진이곳에서는 계속 主穀증산에 힘쓰는 한편 米麥위주의농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축산등 복합營農을 통해 소득증대에 힘써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복합영농과 관련『우리는 연간 40만마리분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를 많이 기르고 특용작물의 재배에도 노력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대통령내외는 소년체전개회식에 참석한뒤 21일하오 歸京했다.

全대통령은 歸路에 공주 ○○기지에들러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北傀 休戰線일대에 휴대용 미사일配置

스톰즈少將밝혀

【板門店=申鉉銖기자】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제임즈·G·스톰즈 소장은 21일 북괴는 미무장지대에 휴대용 地對空미사일을 포함한 重火器를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톰즈소장은 이같은 사실은 유엔측대표단이 지난 7일 귀순한 전북괴군 신중철대위와의 면담결과 얻은 정보라고 밝혔다.

國會소집 다각折衷

週末 3黨총무회담

오는6월초로 예정되고있는 제117회 임시국회소집을위한 與野간의 절충이 금주를 고비로 다각도로 이뤄질것같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금주말께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그에 앞서 與野는 비공식幕後접촉을 통해 국회소집에 관해 절충할것으로 보이며 이와함께 각정당은 黨職者회의등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院內對策을 협의한다.

그런데 6월국회에 대해 民正黨은 정부가 제출하는 각종법안을 처리하는 立法국회로 한정한다는 전제아래 對정부질문을 생략, 政治性을 배제하며 한편 政治議案의 심의에도 難色을 표하고있다.

TV 以前

요지경의 時代史

한국寫眞半世紀展서

「요지경」 金光錫作

피난지 釜山 草梁부근 주택가 골목의 舊正。설빔으로 한복이나 새 검정운동화를 얻어신은 어린이들이 세배해서 번돈으로 요지경을 들여다보고있다。

피난지 釜山골목에 등장한 요지경은 요즘의 TV만화영화 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작가 金光錫씨는 이웃집에 가져다줄 떡이담긴 광우리를 머리에 인채 요지경속에 빨려들어가 있는 어린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셔터를 눌렀다고 말한다。

검은 운동화를 신은 이 어린이들도 이제는 중년고비를 넘고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현대사 진전에서)

地平線

높은곳에서 굽어보면「日」자로지어진 옛 조선총독부청사이던 중앙청은 건물한가운데 큼직한 청동의 돔을인 르네상스 양식으로서, 아무리 선의의 눈으로 보아도 마치 서울의 이마빡이에 붙은고약같다。이같은느낌이란그것이36년간에 걸친 역사적 치부의, 자취라는점에서 더욱 상승되는 것인지 모르겠다。▼일본제국주의가 하필이면 5백년에 걸친 조선왕조의 정궁이던 경복궁터전에 사나운 식민통치의 아성을 쌓은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간교한 셈속이 있었다。북악의 수려한 기운을 누르고 근정전의 우람을 가려서 우리의 민족적인 정기를 짓밟으려는 침략적인 의지의 상징이 필요했던것이다。▼이처럼 무모하고 비문화적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분노를 소리없는 소리로 삼켜야했던, 57년전인 26년10월1일의 치욕을 기억하는 세대가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불소하다。그 쪽거가 오죽하였으면 일본안에서 비판하고 통탄하는 소리가 일기까지 했겠는가。▼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19일의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헌정과 행정의 상징이기도 했던 중앙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되는데 따르는 한가닥 감회가 새로운것도 사실이다。돌이켜보면 우리헌정과 공화국의 역사는 짧으나 중앙청을 에워싼그 자취는 너무나 험난하고 다사다난했기때문이리라。▼아직도 기둥마다 일본의국화인 벚꽃무늬와 일본황실의 문장인 국화가 새겨진 중앙청건물은 오는85년까지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과 아름다움을 담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된다。비록 한 건물이라고는하나 한때는 일본침략의 상징으로,또 한때는 우리헌정과 행정의 중심으로,또 앞으로는 박물관으로 그전변이 무상하여 기구타하지 않을수 없다。▼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김총리가「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 건물에서 떠남으로써 명실공히 일제의잔재를 완전히 씻게 되었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 건물을 오래 지켜보았던 북악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굽어보게될지에, 이건물을 탈바꿈시키는 當路者들의 성찰이 있기를 당부하고싶다.

週刊한국
●신문에 안났던 事件현장
●김홍신의「人間市場」
●한국 [illegible]·人蔘을 캔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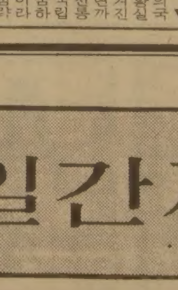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축
일간지발행 2주년기념
○교민사회의 목탁인 한국일보·토론토
○정의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대표 민영숙

영숙보석상
(Toronto Jewellery Exchange구내)
215 Yonge St. (이튼센터 건너편) (영×퀸 북쪽) ☎:(B)368-7961 (R)690-5217

美·시리아·PLO등 中東「불씨」에 부채질

美퇴역將星 F16機 이配置촉구

시리아外相 協定반대 戰爭경고

【워싱턴UPI=聯】미국의 3군예비역장성들은 20일 또 한차례의 中東전쟁발발위험에 대처하기위해 西歐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F16 전폭기들을 이스라엘로 즉각 이동배치하라고 레이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 장성들은 이날 보수적인 국제안보센터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그와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中東전쟁발발위험의 조짐들로 ▲샘5地對空미사일을 조작할 소련고문단의 시리아 증파 ▲레바논내 시리아및 팔레스타인의 전력증강 ▲소련의 신무기시험욕구및 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시리아방문채비등을 지적했다.

이장성들은 레이건대통령이 F16전폭기 75대의 對이스라엘금수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오는 85년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없어이 전투기들이 당장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루트UPI=聯】압델·할림·하담시리아외상은 레바논이 국가적 안정을 회복한후 시리아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할것이라고 말하고 시리아는 미국의 주선으로 마련된 레바논주둔철군협정에 대처하기위해 전쟁에 호소할수있다고 레바논에 경고했다.

하담외상은 20일 공개된 베이루트의 아랍語주간지 안나하르·아랍·앤드·인터내셔널과의 회견에서 시리아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은 레바논의 국가적 평형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적 평형은 레바논의 독립 안보및 통일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보장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주둔 自國軍 5개사단을 팔레스타인戰士및 시리아軍과 마주보는지역에 집결시켜놓고있어 앞으로 수일내에 『중대사태』가 벌어질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20일 보도했다.

◇女수상의 총선지원 「쌍나팔」 대처英國수상이 英國서쪽 콘월지방을 방문, 트럭에 가설된 마이크앞에서 오는 6월9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지원연설에 열을 올리고있다. 【웨이드브리지AP聯=聯】

"안드로포프 시리아訪問" 佛르·프앵誌 보도

【파리·모스크바UPI 聯=聯】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는 하페즈·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의 초청으로 시리아를 방문할것이라고 프랑스의 週刊르·프앵誌가 20일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르·프앵誌는 『안드로포프가 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의 초청을 수락, 시리아를 방문할것』이라고 말했으나 방문시기는 밝히지않았다.

소련과 시리아정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않았다.

對시리아壓力요구 레바논, 蘇聯측에

【베이루트UPI=聯】레바논정부는 소련정부에대해 레바논주둔 시리아軍 4만병력을 철수시키도록 시리아에 압력을 넣어줄것과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레바논철군협정을 인정할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레바논관영통신이 20일 보도했다.

美、미사일上限 擴大검토

내달 核무기減縮회담서… 蘇案에 접근

美, 核감축 새提案

【보스턴AP=聯】美國은 美·蘇전략핵무기감축회담에서 陸上및 海上발사 미사일의 상한선을 확대,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20일 보스턴·글로브紙가 보도했다.

오는6월8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美·蘇핵무기감축회담을 앞두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방안중의 하나인 새 계획에 따르면 核미사일의 보유상한선이 종래 미국이 제의한 8백50基에서 1천1백~1천2백基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고위관리들」을 인용, 보도했다.

核미사일보유 상한선의 확대지지자들은 새 방안이 소련측 제안에 접근하는것이며 장차 미국으로하여금 약3백基의 단일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일명 미드게트맨)을 추가 보유할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방안은 또한 核전력측정수단으로 확인이 더욱 어려운 탄두수 계산방식으로 전환하지않고 미사일數계산방식을 계속 사용할수 있게할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蘇、미그31機 開發 印紙보도

【뉴델리聯=聯】소련은현재세계에서가장고도로개발된전투기로알려진美製F16機보다 성능이 앞선 최신예전투기를 이미 생산했으며 미그31機로 명명될것으로 보이는 이전투기를앞으로 2년내에 實戰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인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마드라스에서 발간되는 힌두紙는 이날소련의 이같은 전투기개발은 극비에붙여져왔다고 밝히면서 소련은 이 전투기의 試製品이 철저한 시험을 거친연후에야 이 전투기의 존재를그들의 友邦들에 밝히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소련전투기는 전혀 새로운 엔진 1개를 부착하고있으며 전투기의 디자인에도 주요 변화가 이뤄져있을뿐 아니라 거의 완벽한 전자유도체제와 攻·守兩用의 발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신형의 소련전투기는 잘 개발된 비행기 생산설비를 보유하고있는 印度와 같은 나라들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臺灣 계엄령철폐를 케네디의원등 주장

【워싱턴AP=聯】에드워드·케네디美상원의원을 포함한 4명의 美의원들은 20일 臺灣의 인권침해사태를 비난하고 34주년을맞은臺灣의 계엄령철폐를 촉구했다.

◇분노의 바리케이드 프랑스농부들이 최근 스페인產야채와 과일을실은 트럭들을 뒤엎은데 격노한 일단의 스페인농부들이 20일 항의표시로 스페인주재프랑스대사관앞에다수백kg의토마토를쏟아놓았다. 【마드리드21日UPI聯=聯】

海外토픽

아시아 최초의 시험관아기 誕生

싱가포르서 임신시도4번째 成功

아시아 최초의 시험관아기가 19일 싱가포르의 칸당·카바우병원에서 출생, 싱가포르와 동남아각국에서 인공수정을 기다리는 1백명이상의 불임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 남자아기의 몸무게는 2.53kg이며 부모는 탄시에·이부인(25)과 공군기술하사관인 리·치예·화씨.

싱가포르 국립의과대학 산부인과과장 라트남교수는 기자들에게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이불가능한 1백6명의 여성들이 인공수정을받기위한 각단계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들중 60%가 싱가포르 여성이고 나머지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타이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UPI】

장마짧고 무덥다 日기상청서 예보

금년여름은 장마가 짧은 대신 4년만에 무더운 여름을 맞게돼 맥주·선풍기·에어컨·아이스크림·수영복등 관련업체가 작년의 불황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聯】

韓·佛 農業·畜産기술協力 경제協力委

韓·佛경제협력혼성위원회는 지난 18, 19일 이틀간 서울에서열린 제3차회의에서 ▲농업및 축산분야의 기술협력 ▲합작및 기술移轉을통한 中小기업분야 협력 ▲건설분야의 제3國공동진출등에 합의했다.

社說

民營鐵道의 前提條件

철도는 쾌적하고 안전도가 높은 全天候교통수단이라 PR하고 있지만, 오늘날 몇몇간선을제외하고는 고속버스붐에밀려 斜陽化하고있음이 사실이다.

이에비추어 정부가 현재 적자를내고있는 京春·서울郊外·京元·東海남부등 일부 철도의 民營化를 검토중에 있다 함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理想을 말한다면 철도는 公共사업인만큼 합리적인 官營이 바람직스럽다고 할것이다. 하나 赤字가 누증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무거워지는 상태하에서, 문제의 근본적인해결책으로 철도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일단 검토의 가치가 있는것으로 본다.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移行을 통하여 가능한限 정부가 재정부담을 덜어나간다는 것은 賢明한일일뿐더러, 상당수의 선진국들도 철도의 公社化 또는 民營化를 지향하는것이 근래의 趨勢인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우리기업인들의 경영능력이 성숙해졌고 철도부설이나 차량생산에필요한 기술도발달하여 그國內自給이 가능하게되었음을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하여 국영철도의 일부를 민영화한다면 현존노선의 운영이개선되고, 철도교통의 쇠퇴를 가져올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연하자면 철도의민영화는 관료적경영에 따르는 비능률·비경제성을 배제하고 각종老朽시설을 개체하여 그이용자들에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또한 우리의 技術蓄積을 효율화할수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철도민영화에 隨伴될 몇가지문제점에대해 당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두고자한다.

첫째로 철도운영권을 넘겨받는 사업가는 敷地의 확보및 沿道개발, 주로 驛주변에 마련될 商街(백화점포함)와 시장, 이밖에 각종 利便시설등을갖추는데있어 적지않은 開發利益을 얻게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경우, 철도는 어디까지나 공공 사업이므로 그 開發이익이 과대하거나, 편중되어서는 안될것이고, 또 그利益의적정선을 공익으로환원시키는 제도적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잘해보자던 철도민영화가, 그운영상태의 개선은 외면되고 도리어 運賃을올려받는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不利益을강요하는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예방하기위해서다. 요컨대 철도민영화가 민간업자들의 한낱 利權으로 化하지않게시리,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투기및 폭리행위로 致富를한 전력이있다던가 지금 과도한 내외債務를걸머지고있는 재벌 또는 기업인 그리고 지난날 기업운영에있어 큰사고를냈거나 하자를 드러낸 사업가는 철도민영화에 참여시키지 말아야한다. 그런사업가들에게 철도를 맡긴다면 구태의연하게 행정지원이나 金融特惠를받아 개발이익만을 많이 올리려고 몰두할것이 뻔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철도민영화에 있어서는 企業의 倫理관도 측면이 보다더 중시돼야 마땅할줄로 안다.

세째로 민영화대상 노선선정에 있어서는 깊은 배려가 있어야할 것같다. 예컨대 京元線은 우리의 평화통일촉진노력과도 관련하여 서두르지않는편이 좋지않을까한다. 또 서울郊外線의경우는 현재 상태로 민영화할것이 아니라 電鐵化하여 연변에 한시간안팎의통근권에드는 위성도시들을 건설케함으로써 서울인구의 분산과 주택난완화에 이바지할수있게 했으면한다. 그리고 민영화될 철도는 國鐵의 정거장이나 주요버스터미널과 연결될수있게시리 그노선을 설정하여 모든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싶다.

아뭏든 우리는 정부가 방금 검토중에있고 관련업계에서도 이미 채산성검토등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國鐵의 부분적인 민영화문제에대하여 깊은관심을갖고 그추이를 예의 주시코자하는바이다.

質問없는 國會라…

그리스의 哲人은 「너 자신을 알라」는 萬古不易의 일깨움을남겼다. 누구나 다 아는 이 격언을 국회의원諸公에게 새삼 想起시킬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의 心情은 자못 착잡하다.

국민의 인식으로는 국회의원이란 국민대표인 政治人이다. 그리고 국회는 政治人들이 모인 對話와 審議의 廣場이며, 가장 「자유로운 言論의府」라고 간주된다.

그럼에도 6월초순에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運營을 싸고 야릇하지 않을수 없는 說往說來가 빚어지고 있음을 본다. 政街일각에서는 오는 임시국회가 會期도 짧은데다가 質問거리도 별로 없어보이니, 法案및 請願심사에 중점을 두고, 國政보고와 각당 代表연설 그리고 本會議의 對政府질문을 생략할방침을 비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정부제출法案만 「효율적으로」 통과시키는 국회運營은 政治發展을 그르치는 「중대한 先例」를 남길것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들린다. 더하여 對政府질문거리가 없다는것은 夏穀수매가, 學園문제, 大型사건의 뒤처리, 政治議案에 걸쳐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할 문제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하는 반발이 적지않다는 보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회운영의 「신축성」보다도 發想姿勢에 관하여 한가지 지적해둘것이 있다. 즉 자체의 存在意義를 스스로 도외시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이기에 국민의 소리없는 소리를 예민하게 대변할 의무가있다. 또 政治人이기에 온갖 政治的 事態진행에 대한 結果的責任을 미리 洞察할줄 알아야한다는 期待可能性을 지니게된다. 가령 「質問없는國會」라는 야릇한 先例의 초래가 그 效用에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적에 「本意는 그렇지않았다」는 변명은 좀처럼 통용되기 어려우리라는것이다. 나아가서 國會는 民意를 수렴하는 「言論의 府」라는데 本領이 있음을 잊지말아야할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않아도 선거민의 國會請願이 해마다 줄어들고있는 추세이다. 11대國會의 開院첫해에 1백51건이 접수된데 비해 작년에는 불과 69건이었고 올해 20일현재는 겨우 11건을 셈할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더구나 국회의원諸公들은 法案및 請願의 심의라는 專門的 「實務者」수준을 넘어선 存在意義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폭넓게 의식해야하며 국회는 가장중요한 「言論의府」로서의 本領에 투철해야 한다. 「질문없는 국회」라는 어설픈 이미지를 自招하지 말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

교차승인·유엔 同時가입 "南北 영구分斷술책" 妄言

—北傀 李俊玉회견—

【東京=宋孝彬특파원】東京에서열린 제23회 亞阿법률자문위원회에 참석중인 북한사회과학법학연구소 부소장 李俊玉은 아사히(朝日)신문과의인터뷰에서 『南北韓교차승인및 유엔동시가입제의는 南北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술책일뿐』이라고 20일 말함으로써 본래의 입국목적에 위배되는 정치선전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李俊玉은 중공民航機납치사건을 해결한 한국과 중공간의 직접접촉에 대해서는 『납치사건이전에 平壤을떠나 전혀 아는바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張吉山 <174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6)

그리고는 정명 익명헌제와 이사흠 방귀선등을 지원하여 양주목에서 탈취한 병장기로 더욱 많은 상번병들을 모아 무장 시켜서 한양으로 올려 보낸다는것이다. 대개 주요한 사람들의 부서는 모두 결정된 셈인데 마침 오기로 약조된 전성달이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

『삭녕 흥선산 전상좌는 어찌되는거요?』

정원태가 물으니 황회가 대답하였다.

『전거사는 따로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원병력을 이끌어 천마산에 묻어 두었다가 솔부리패의 안내를 받아서 흥인문으로 들어올것입니다』

김시동이 침통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기왕에 처음부터 이마를 맞대고 계획을 함께 짰으니 그 누구도 돌아설 수가 없지요. 하지마는 일이 사방으로 번지고 백성들을 동원하다 보면 한 입 건너 두 입이 금방 수 천으로 퍼져 나갈 터인즉, 거사가 이루어진뒤에라면 모르되 관에 먼저 기찰되면 일이 글러 버리게 됩니다』

『염려마시오. 부서를 정한 이들 외에는 절대로 이 모든 상세한 기밀이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군호는 대우(大雨)요, 전언(前言)은 천변(天變)이요, 후언(後言)은 용녀(龍女)올시다. 그믐날부터 벽에 천지가 개벽할것이라는 소문을 내었다가 양반이 멸하고 상사람의 세상이 오며 석가가 멸하고 미륵이 오는 때가 왔다고 널리 알리고, 사방 십이제국이 모두 멸망하고 용이 진인(眞人)을 도와 용화세상을 이루려고 한양에 입성하였다는 소문을 내십시오. 그리고나서 그믐날 아침부터 호별방문하여 장정들을 모으면 쉽게 군중이 모일것이요. 또한 양주의 양곡을 탈취하러 가자하면 너도나도 따라 나설 것이외다』

여환의 개벽 소문에 대한 말을 듣자 정원태가 의견을 내었다.

『천재지변의 개벽이라 …아예 지난번에 천불산서 보내온 신서와 비슷하게 우리 일을 참서(讖書)로꾸며서 원근사방에 돌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일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는 포교하던 이들이 돌리는게 손쉬울 겝니다』

민심을 움직이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해서 군사는 계음령에, 강원군사는 솔부리에 적어도 스무 여드레까지는 잠복해야만하고, 한양 성내의 내응을 준비하는 이들도 그때에 먼저들어가 있다가 그믐날 밤부터 초하루까지 벌떼같이 일어나 궁궐을 점령하기로 통문을정하였다. 그리고 양주쪽에서는 선진과 후진이 따로부터 별로모여서 지금결안된 사항들을 더욱 상세히 따지기로 하였으며 모든 연락처는 칠성암이 그중심이었다.

여환은 통문(通文)을 썼으니, 거사일자와 체결내역과 군병의 동원을 밝힌 것이었다. 뒤늦게야 전성달이가 시동이네 집에 당도하여 황회가 대략 갖추려서 이제까지의 결안된 사항을 설명하여주었으며 성달이 여환에게 넌지시 일러 주었다.

남의 주민등록 이용 移民후 귀국해덜미

○…서울淸凉里경찰서는 19일 행방불명된 사람의 주민등록을 이용, 군복무까지 마친다음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일시귀국한 金用林씨(26·서울東大門區祭基洞576)를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10년전 강진집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간 변의웅씨(41·美하와이주호놀룰루430)의 친동생이 행방불명된 사실을알고 미국에 가기위해 지난75년 변씨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변화용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기시작, 79년 7월에 군복무까지 마치고 이듬해12월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는것.

金씨는 지난3월20일 부인 李모씨를 데려가기위해 귀국했다가『간첩같다』는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어 그동안의 변신행위가 들통이 났다.

땅끝에서 오다 <62>

金成一 作 宋龍 畵

曠野의 소리 ②

『진작 알려주셨으면 우황청심원이라도 사가지고 왔을게 아닙니까?』

파연 세상에 안심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멋장이 신사였던 아버지가 반신불수로 변할 줄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의 언제나 낙천적이요, 자신만만하던 두눈은 생기를 잃고 허공에 걸려 있었다. 항상 재치있는 조크로 사람들을 웃기던 그 입에는 침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놀란것은 아버지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직도 정신이 나간듯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병원에는 가 보셨읍니까?』

아무 쓸모없는 질문이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가본들 무슨 수가 있겠니? 뇌졸중(腦卒中)이란 본래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저 예방이 제일 상책이란는데, 이미 당해버렸으니 어쩌겠니. 그래도 발병해서 24시간내에 사망하는 수가 많다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대개 아버지처럼 몸은 마비되었어도 의식이 좋으면 비교적 예후가 양호하다는구나』

『이젠 술, 담배도 안되시겠네요』

『느이 아버지 멋부리기도 이젠 끝장난거지』

준호는 수트케이스에서 조니·워커와 켄트 담배를 꺼내어 아버지가 잘 볼 수 있는 문갑 위에다 올려놓았다.

『이젠 이것도 소용 없게 되었군요. 기념으로 두고 보세요』

갑자기 아버지는 입을 벌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준호가 의아해하고 있을때 아버지의 웃음은 금방 울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아버지, 마음을 명랑하게 가지세요. 아픈 사람은 아픈 맛과 아픈 멋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또 마구 웃다가 다시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설명을 했다.

『감정 조절이 안되는 것이 뇌졸중 환자의 특징이라는구나. 온종일 저렇게 울다가 웃다가 하신단다』

『어머니!』

준호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어머니를 불렀다.

『왜……?』

『아버님이 조금씩 걸으실 수는 있나요?』

『그럼, 새벽마다 나하고 늘 걸음마 연습을 하신단다. 평생을 신나게 잘도 돌아다니시더니 이젠 다 늙어서 마누라한테 걸음마 배우시는거지. 팔난봉으로 내 속깨나 썩이시더니 이젠 아마 그 벌을 받으시는 건지도 몰라』

『그 정도라도 걸으실 수 있다면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 같은데나 한번 나가보시지요』

『놀라운 일이로구나.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어머니는 손가락을 들어 문갑 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거기엔 성경과 찬송가가 두권씩이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아버지와 나대는 재미로 살아온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중풍은 오히려 은혜이며 축복이었던가. 준호는 다시 아득하게 미지(未知)의 벼랑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구독신청은 533·23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외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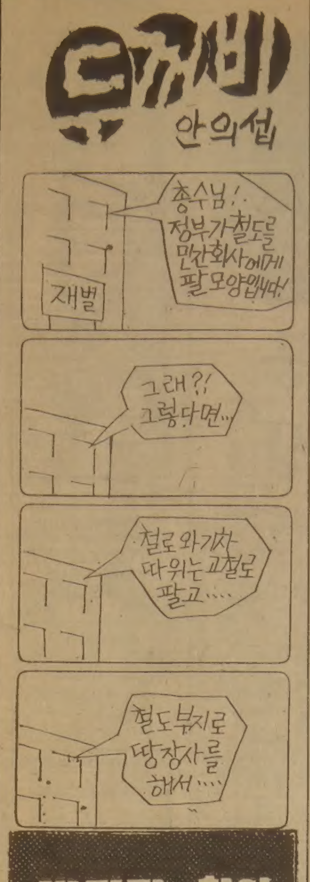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인삼, 녹용을 가루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관절염 특효약
◎자연을 마시자!(천연식품)
◎힘을 마시자!(녹용원액)
◎정력을 키우자!(보신탕원액)

645 BLOOR ST.W. TORONTO
☎: (416)530-0522, 530-4900
지방문의환영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덴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캬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성수



◇초췌한 모습으로 法廷나서는 趙世衡피고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10년을 구형받고 법정을 나서는 趙世衡피고인。상처를 치료한 뒤라서인지 초췌한 모습이었다。

아파트서 3남매 被殺
主婦는 輕傷… 동반自殺가능성

어제아침 水原서

【水原=鄭在龍기자】21일상오 8시30분께 경기水原市亭子洞 송림아파트 11동 405호 金榮康씨(34·한국브레이크공원) 집안방에서 金씨의 장녀 珠元양(8·芭長국교 1년) 2녀 其姸양(5·유치원생) 장남 敬穆군(2) 등 3명이 목이 칼에찔리거나 목졸려 숨지고 부인 白昌順씨(31)가 팔목에 자상을입고 신음중인것을 金씨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圖金씨에의하면 전날밤 야근을마치고 이날상오 귀가해 출입문을열어보니 白씨가 러닝셔츠와 슈미즈차림으로 피투성이가된채 출입구앞에 쓰러져있었고 안방에는 3남매가 모두 잠자는모습으로 요위에 나란히 숨져있었다는것。

부인 白씨는 왼쪽손목에 대각선으로 6군데 면도칼로보이는 흉기로 자상을입고 인근瑞民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3곳의상처는 찰과상정도로 동맥에 이상이 없었으며 장롱등을 뒤진흔적이나 피해품도 없었으며 전날받은 일수이자 46만원도 쇼핑백안에 그대로있었다。수사에나선 경찰은쓰레기통에서 부인 白씨의것으로보이는 피묻은 여자용옷 옷내의와 수건5개를 발견한데이어 이날하오 부엌싱크대밑에서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찾아냈는데 이칼은 金씨집 것이었다。

경찰은 白씨로부터 20일밤10시께 남녀2명이 찾아와 돈1백만원을 급히 꿔달라고 요구,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자신을 과도로찌른뒤 아이들을 찔렀다는진술에따라 이들 남녀를 범인으로보고 수배하는 한편 ▲白씨가 전날밤 찾아왔다는 2명의 인상착의등에대해 횡설수설하고 있고▲자신의 상처가 심하지 않고▲피해품이 없으며 이웃에서 이상한 소리를 전혀듣지못했다는 점등으로미루어 동반자살을 기도한것이 아닌가보고 수사중이다。

새벽에불 4명燒死

21일새벽 2시30분께 서울冠岳區 奉天2洞94의1 白南葉씨(48·무직) 집2층에 세든 李東澈씨(42·박수무당) 방에서 불이나 李씨와 장남相現군(6) 차남相珍군(5)과 옆방金수완씨(36·목수)의조카 陳성일군(15) 등 4명이 불에타숨졌다。

경찰은 숨진 李씨가 전날 석가탄신일에 밤늦게까지 촛불을켜놓고 친구들과 술을마신점과 완전히 타버린 연등과 촛대가 쓰러져있는점으로 미루어 李씨가 촛불을 끄지 않은채 잠들어 연등에 인화되면서 불이난것으로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흐리고 무더운休日

휴일인 22일의 우리나라 날씨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기온은 낮최고25도를 웃돌아 더울것같다。

중앙기상대는 이날 전국이 약한기압골의 영향을받아 22일은 전국이 가끔흐리고 기온은 서울16~25、大田14~26、光州18~25、大邱14~28、釜山17~26도정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공민교 差別철폐주장 發言도중 卒倒
이틀째 意識못찾아

金基南 연합회장

전국고등공민학교연합회회장 金基南씨(58·서울제일고등공민학교장)가 지난19일하오 서울鍾路區三清洞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열린 사회교육법시행령 공청회에참석, 발언도중 졸도,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째인 21일하오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있다。

金씨는 이날 새로제정되는 사회교육법시행령이 고입검정고시과목을 고등공민학교에 차등을두어 책정됐다고주장, 공민학교측의 입장을밝히는 발언을 10분동안 계속하다 격앙돼 말끝을맺지못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은뒤 그대로졸도했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趙世衡피고 無期구형
보호감호10년도 함께
"교도관免職돼미안" 趙 최후진술

大盜 趙世衡피고인(35)에게 다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李根學검사는 21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金盛晩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趙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및 특수 도주사건 결심공판에서 구치감 탈주이전의 구형량과같은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을구형했다。

趙피고인은 지난달14일 구형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뒤 구치감을탈주, 지난달19일 다시 검거돼▲특수도주죄▲도주후저지른 6차례의 절도중 3차례의 절도▲추가로 확인된 金埈成부총리집에서의 유가증권 5억여원어치 절취부분등이 추가기소돼 이날공판이 재개된 것이다。

이날공판은 검사신문 변호인반대신문 구형과 변론 최후진술순으로 진행됐는데 趙피고인은 검찰공소사실을 대부분 순순히 시인했으나 탈주동기와 계획탈주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趙피고인은『장기복역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탈주했는가』라는 검사신문에대해 이를 부인한뒤 安東壹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탈주는 우발적이었다』며 『법정진술로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을 호소할 수없을것같아 수사과정을 숨김없이 글로써서 보도를통해 시민에게 호소하고싶었다』고 진술했다。

趙피고인은『변태적인 수사란 피해자가 둔갑하고 피해액이 줄어든것을 말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그렇다』고 답변하고『탈주후 체포되지않으리라고는 생각지않았으나 이같은뜻을 이루지못하고 체포된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趙피고인은 또 탈주는 단독범행이었으며 검거당시 목욕탕에 갇힌다음 대항할 여지가없어 자수할 뜻을밝혔는데도 경찰관이 처음부터 총기를조준해 발사했다고 말했다。또인질극을 벌일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경찰관이 총을쏠태세를 보여 함께있던 대학생을다치지않게 하기위해 욕조속으로 밀어넣었다고말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에서 趙피고인은 어릴때부터 20여차례에걸쳐 가정법원에 송치되는등 범죄의 깊은 늪에 빠졌으며 청소년기에는 수십명의 앵벌이를 거느리고 악행을 자행하다가 14년6개월간을 복역했으며 출소후에도 8개월만에 교도소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고 趙의 전력을 밝혔다。

변론에 나선 安변호사는 『절도액수가 많더라도 모두 주간에 저지른단순절도일뿐 강도, 상해가없고 우발적으로 탈주한뒤 극한상황에서도 흉악범죄하지는 않은 점등을 참작해 볼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은 과중한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趙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범법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것으로 생각하며 변명의 여지도 없지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짧게 말한뒤『다만 가슴아픈 것은 도주사건으로 교도관 여러명이 파면된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5일상오10시 열릴 예정이다。

小型映畵館시대
200席미만 규모…서울에만 16곳
문화空間 역할 기대속 急造로 副作用 우려도

·서울에 소영화관이 16개소로 늘어났다。몇년전부터 일기시작한 연극의 소극장운동에 이어 이번에는 소영화관붐이 일고 있는것은「문화빈곤」이라는 불명예를 씻을수있는 계기일수있어 흐뭇한 소식이다。

더구나 상업주의의 대형영화관(극장)들이 수지타산을 맞추지못해 쩔쩔매고 있고 국제극장이 문을닫는 판국에 영화의 소극장붐은 이변이기도 하다。

영화인들은 이들 소형영화관이 문화의 공간으로서 영화인구의 저변확대에 공헌하고 있다는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전통없이 急造된것들이어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않은게 흠이다。

소형영화관이 처음으로 개관된것은 지난해 9월。江南區 新沙洞4거리에 永東극장(대표 朴基峰)이 문을 열면서 鍾路區 明倫洞 高大병원옆 아카데미극장(대표鄭道煥·46) 江南區盤浦洞 뉴코아극장(대표金의철·42) 踏十里洞의 장미극장(대표李根雄) 江東區 馬川洞 巨餘(대표張贊洙·38)와 馬川극장(대표趙弼萬·54) 등이 잇달아 개관했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은편。

이들 소영화관은 아파트밀집지역과 학교부근,주택가의 3~5층짜리 빌딩에 객석 1백~2백석규모로 운영되고있는데 일반극장과 같은 35㎜짜리영사기로 렌즈를 축소조작, 영화를 상영하고있어 건물마다 내부구조가 다르기때문에 영사막의 크기도 들쭉날쭉인 형편。

또 일부영화관은 영화관내부벽과 바닥 천장이 내화벽(耐火壁)처리가 안돼있고 심지어·휴게실의 바닥이 카피트로 깔려있는곳도 있으며심야극장으로 운영되고있어 청소년풍기문제도 대두되고있는 실정。

일부 영화관에서는 성인영화와 만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난센스도 빚고있으며 대부분「중고생출입금지」는 형식에 그치고있다。

요금도 자유화란 구실아래 대인·소인구별없이 1천5백원(변두리는 1천원)으로 청소년들이나 만화영화보다는 성인영화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인상을 주고있다。

상영시간은 대부분 낮12시부터 5~7회 공연하며 심야극장은 밤11시30분부터 1~2회를 하고있다。

永東극장은 지난해 9월 개관한이래 지금까지 30여편의 영화를 상영, 극장이 없는 永東지역의 유일한 영화관으로 성업중인데 객석1백75석。사무실빌딩인 大洋빌딩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객석만 소영화관일뿐 일반재개봉극장과 다름바없다。

애인崔모양(24)과 함께 호메스를 보고나온 鄭海植씨(회사원·24·江南區狎鷗亭洞·현대아파트33동)는『빌딩에 있는 극장이라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됐으나 분위기가 아담해 좋다。그러나「小劇場」본래의 아기자기한 맛이없이 일반劇場化한것같다』고말했다。

아카데미극장(1백62석)은 지난2월 신한영화주식회사 鄭道煥사장(46)이 흥행에 관계없이 종교영화와 흘러간 명화관으로 출발했으나 타산이 안맞아 성인영화를 방영하고있다。

지난19일 江東區 馬川洞 馬川극장(1백7석)에서는 평일1백여명, 주말에는4백여명이 관람한다。성인영화「熱愛」와 만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하고있었는데 관객의 40%가량이 중고생들이었다。소방시설과 비상구등은 기존건물의 설비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심야극장이 만원일때 종업원은 대부분 10명내외로 화재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무방비상태다。

같은 馬川洞의 巨餘극장(객석1백65석)에선 19일「개인교수」와「애권」이 동시상영되고 있었는데 관객의 50%가량이 중고생이었다。소화기·소화탑등 소방시설이 눈에 안띄고 비상구는 출입구겸용으로 돼있었다。

모처럼 일기시작한 소영화관붐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역할을 다할수있기 위해서는 좋은프로의 배급과 업선,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해한경이 안되도록 제도적인장치와 단속등이 시급한 실정이다。【蘇熙澈기자】

◇바람직한 登場이긴 한데… 모처럼 일기시작한 소영화관 붐은 문화부재 현상을 해소하는 좋은 흐름이다。그러나 돈벌이에 급급, 문젯점을 양산해갈 가능성이많다。

무허電子오락실 경찰과 合同단속
보사부、業者團體고발… 解散조치

보사부는 무허가 전자오락실이 크게 늘어 임대업까지 생기고 도박등 각종비리가 잇따르자(한국일보20일자 11面보도) 21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한편 대책마련을 서둘기로했다。

보사부는 이날 전자오락실대책이 확정되지 않은틈을타서 무허가업자와 오락기 설치업자 1백60여명이 한국전자오락회(회장 金기성)한국전자오락실중앙회(회장 전인걸)등을 조직, 불법전자오락기를 제조해 대량판매를 목적으로 허위선전을일삼고 있다고 지적, 이들을 일제조사해 사직당국에 일괄고발하고 해산조치하도록했다。

한편 이에따라 서울龍山경찰서는 이날 속칭플로버게임으로 도박을 하게한 李林福씨(24·서울銅雀區本洞458의3)를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술주정 부린다고 남편에 劇藥먹여

【全州】경남 河東경찰서는 21일 남편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하려던 오순자여인(21·河東郡 花開面 凡旺里 670)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鄭】

"반달곰을 救하자"
雪嶽山서 발견… 住民 신고

雪嶽山에서 야생반달곰이 부상당한채 발견됐다는 현지주민의 신고에따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1일하오3시께 강원東草경찰서는 다리에 부상을 당한듯 움직이지못하는 반달 곰을 발견했다는 주민의 신고에따라 곰을 구조하기위해 경찰관과 산악구조대원으로 수색대를편성, 현지에 보냈다。

주민들에의하면 이곰은 지난19일 하오 雪嶽山남쪽 줄기인 點鳳山 7부능선에 엎드려 움직이지못하고 있었는데 부상이 큰듯 빈사상태였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신고한곰은 몸길이가 2m가량으로 17년생정도인데 가슴의 반달무늬가 선명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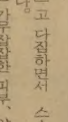
한편 雪嶽山에 반달곰이 서식하고있다는 것은 그동안 현지주민들에 의해 여러차례 목격됐었는데 경찰은 밀렵꾼의총에 맞았거나 덫에 걸린것이 아닌가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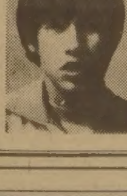
五松會사건 피고들 징역10년까지 求刑

【全州】全州지검 安大讚부장검사는 21일 상오10시 全州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李補煥) 심리로 열린 五松會사건결심공판에서 李光雄피고인(42)등 9명의 피고인에게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3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李光雄(42) 징10자10 ▲朴定石(37) 징8자8 ▲田成源(27) 징5자5 ▲李玉烈(28) 징5자5 ▲黃潤太(30) 징5자5 ▲趙成勇(45) 징5자5 ▲姜庠基(35) 징3자3 ▲崔奎永(30) 징3자3 ▲嚴澤洙(30) 징3자3【鄭】

自由를 뛴다
소년體典 육상선수 崔振英군
베트남敗亡후 한국에… "꿈만 같다"





21일 막이 오른 소년체전에서울시 육상대표로 참가한 서울발산국교5년 崔振英군(12·사진)은 화려하게 펼쳐지는 카드섹션의 물결위에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았다。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아버지지만 순간순간 변해가는 아름다운 무늬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듯 했고,아버지에게 육상선수가 된 자신의 늠름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무리 해도 아버지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고 눈물이 눈앞을 흐릴뿐이었다。그래서 소년은 어머니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려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달랬다。

崔군은 가무잡잡한 피부, 약간 푸른빛이 도는 눈빛, 윤곽이 뚜렷한 얼굴등을 지닌 혼혈소년。아버지는 한국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월남사람이다。

崔군의 가족은 월남이 패망한후 무작정 월남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 한국으로 향했다。어머니리·치·우(42)의 손을 잡고 金浦공항에 내렸을때 崔군은 7살동생 광남은 5살, 미화는 3살이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주선으로 보호소에서 한달간 머무르며 아버지의 소재를 수소문했다。얻어들은것은 아버지가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뿐이었다。어머니는『내조국도, 너희들조국도 없어졌다』며 3남매를 껴안고 울었다。

이때부터 4식구는 가시밭길을 헤쳐야 했다。고모의 도움으로 禾谷洞에 방을 얻고 어머니는 뜨개질로 생활비를 벌었다。어려움속에서도 어머니는 崔군을 학교에 보냈다。한국말도 모르고 모든게 서툴러 힘들었으나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

못먹어 몸이 허약했다。키만은 1m64cm나 돼 달리기는 항상 1등。육상을 전공한 李承遠교사의 눈에 띄어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처음엔 다른선수에 비해 떨어졌으나 합숙하며 잘먹으니 체중도 2kg이나 불고 80m를9·8초에 달릴만큼 기량이 부쩍늘어 4백m계주선수로 선발됐다。

개회식의 환호속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달리게 된것이 꿈만 같이 생각됐다。이와함께 기억이희미한 어머니의나라가되살아났다。

소년은 그러나 마음껏 달릴수 있는 자유로운 아버지의 나라가 좋았다。【全州=소년체전취재반】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한국일보

鐵道일부 民營化검토

京春·서울郊外·京元·東海남부등 대도시 주변 赤字운영 支線대상

철도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민영화대상은 경부선과 호남선, 중앙선등 주요간선철도를 제외한 지선중 채산이 맞지않는 적자노선이며 구체적으로 ▲서울성북역과 춘천역을 연결하는 京春線 ▲서울~송추를 순환하는 서울교외선 ▲서울 성북과 전곡을 잇는 京元線 ▲釜山~松亭사이의 동해남부선등이 검토대상으로 되고있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0일 『철도 노선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요간선을 제외한 대도시주변 지선중에서 현재적자나는 노선이 민영화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영화되는 대도시주변 철도지선의 종점과 중간역 주변지역을 학교 병원 시장및 상하수도 시설등을 완비한 독립된 생활권의 주거도시로 개발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인구 분산도 아울러 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서울·釜山등 대도시와 1시간내외로 연결될수있는 서울교외선, 경원선, 경춘선, 동해남부선등이 구체적인 민영화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방침과 관련 업계에서도 일부대형 건설업체들이 민영화후보노선을 대상으로 채산성검토등 예비조사를 착수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것은 전매사업이나 철도사업등 정부의 현업관서를 점차 민영화시켜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특히 철도의경우 해마다막대한 적자로 정부재정에큰 부담을 주고있어 적자나는 지선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한것이다. 철도와함께 정부는 담배, 인삼등 전매사업도 민영화한다는 방침아래 ▲전매청을 공사화하는 방안 ▲각지역 담배제조창별로 민간기업에 불하하는 방안등을검토했으나 정부재정수입등과 관련 좀더 신중히 검토키로하고 아직 결론을내리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토지再買入 기업 금융制裁등 촉구

民韓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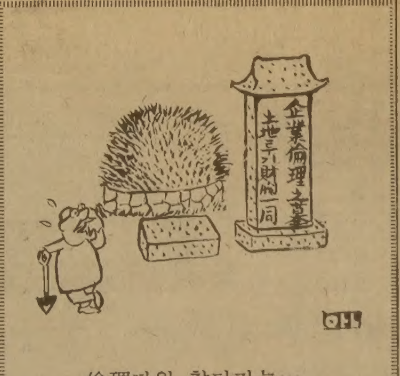
民韓黨의 金文元부대변인은 企業의 토지 再買入 자진신고 내용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통해 『엄청난빚에 허덕이면서도 이들이 부동산투기를 일삼을수있었던 근본원인이 결국 정부당국의 財閥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정책과 허술한 與信관리및 잘못된 토지정책임이 입증됐다』면서 『정부는 스스로의 정책자세를 깊이반성 금융·토지 정책에대한 일대 전환점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국민의 돈을빌어 投資대신 投機를 일삼은 이들의 행위를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국민違和感을 조성하는 反사회적행위로 규정, 이들업체에대해 즉각 금융制裁및 司直당국에 고발조치 함으로써 법의준엄한 심판을받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停戰委본회의

군사정전위원회 제4백18차 본회의가 공산측요청으로 21일상오 판문점에서 열린다고20일 유엔군사령부가 밝혔다.

社会漫評



倫理따위 찾다가는…

야생鳥獸 포획未遂도 처벌

山林廳 덫·올가미등 수렵器具판매 不法化

6월國會 개정안 내기로

앞으로 폭발물이나 독극물, 함정등을 이용해 야생조수를 잡으려하거나 조수류의 알, 새끼집을 채취하려고한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또 공기총도 면허를받아야 수렵에 사용할수있으며 불법포획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된다.

야생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에대한 벌칙도강화되어 1년이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내게되었다.

산림청은 20일 야생조수의 보호와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기수립된 현행제도로는 불충분하다고보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덫이나 올가미등 수렵기구판매를 불법화했고 박제품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군수에게 등록토록 하는등 수렵행위에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했다.

또 그동안 각 시도에설치됐으나 유명무실하던 조수보호위원회를 폐지, 그 기능을 시도정책자문위에 넘기고 야생조수를 인공사육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받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수보호나 증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수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대신 지금까지 각시도가 관장하던 수렵장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활성화하기로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불법수렵행위에대한 벌금을 대폭 올렸는데 수렵이 허가된 조수와 수량 구역 기간 엽구를 어긴사람은 지금까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것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조수의 새끼알 집을 불법채취했거나 조수보호구역에서 벌채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경우와 박제품 제조등록을 하지않은 사람등은 현재 3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물던것을 1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렸다.

임시國會 7일召集 對政府질문 않기로

與野, 來週총무회담

與野는 내주중 총무회담을열고 오는6월의 제1백17회임시국회 會期와 議題등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民正黨은 이번 임시국회를 6월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會期로 소집하며 法案및 請願심사에 중점을 두어 6월9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법안심의를위한 常任委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당대표연설, 國政보고,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생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20일 『제1백16회임시국회가 끝난지 얼마되지않고 그동안 변동사항도 없기때문에 대표연설, 國政보고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본다』며 『임시국회를 6월초에 열고했으나 5일(일요일), 6일(현충일)이 連休여서 7일에 여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民韓·국민당등 野黨측은 6월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생략하는것은 관행에 어긋나며 야당이 제출한 政治議案등 여러안건도 다뤄야하기때문에 14일간의 회기로는 충분한 법안심의를 하는데 부족할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확신범에도 特赦를

民韓성명

民韓黨의 金文元부대변인은 20일 정부의釋誕日特赦에관해 성명을발표, 『1천1백86명의 모범수를 假釋放한조치를 환영하며 특히 韓英洙前의원의 가석방조치는 晩時之歎의 感이있으나 다행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도 확신범또는 정치범에대한 특사의 은전에인색함을 지적해두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특사의 기회가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蘇핵先制공격 極秘연구

잭·앤더슨 폭로 蘇、89년에 美미사일 99% 파괴능력

【워싱턴=聯】 美공군은 소련이 核선제공격을 가해올 경우 미국의 地上배치전략 核미사일의 90%이상이 파괴될 것으로 보고 미국은 이에대비, 소련의 핵미사일격납고에 대한 선제 핵공격방안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다고 19일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잭·앤더슨이 워싱턴·포스트紙를 통해 폭로했다.

한편 美 공군연구개발국장 로렌스·스캔치중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년후인 오는 89년에는 소련이 제1차 선제공격에 의해 1천47개 지하격납고에 배치돼있는 미국의 지상미사일체제를 99%까지 파괴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현재의 급선무는 이같이 낮은 지상배치미사일의 殘存率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잭·앤더슨칼럼에의하면 美국방성과 軍縮局(ACDA)은 「1983년 미국의 가상선제핵공격결과」라는 비밀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의 위기상황에 대비, 1백개의 MX미사일등 모두 1천3백98개의 핵탄두로 소련의 핵미사일격납고를 선제공격하는방법을 검토하고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中共外相 平壤도착

【도오꾜=聯】 중공외상 吳學謙이 20일 비행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東京의 신문과 방송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吳學謙도착에앞서 이날 평양방송은 『양국간의 친선이 과거어느때보다 돈독한 시기에 吳외상이 방문하는 것을열렬히환영한다』고강조했다.

중공외상 吳學謙의 평양방문은 한국과 중공이 민항피납기 사건처리를 둘러싸고 직접 접촉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身病 사하로프夫婦 蘇당국에 入院호소

【모스크바UPI聯=聯】 소련의 반체제물리학자 사하로프夫妻는 20일 심장병을앓고있는 자신들을 병원에함께 입원시켜줄것을 소련당국에 호소했다.

咸秉春실장 出國

咸秉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特使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등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하오 6시出國했다.

咸실장은 순방중 이들3개국정부 首腦들과만나 상호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뒤 오는6월3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母 情」 鄭範泰 作

海外進出時代의 尖兵

렌즈의 時代史

한국寫眞半世紀展서

월남파병과 이에 따른 人力진출이 60년대 사회에 몰고온 변혁은엄청났다。국군의 용맹과 나라의 國力이 四海에 떨쳤고 국내경기도 호황을 구가했다。파월되는 아들을 전송하는 한 어머니가 이 숨가쁜 역사의 현장속에 서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길러서 나라에 바치고, 아들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자 나라의 아들이다。사진은 65년 여름 서울의 파월장병환송행사장。나일론 한복차림의 한 시골어머니가 떠나가는 아들을 전송하고 있다。(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에서)

地平線

통제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地下신문, 地下여론이 활개치게 마련이다. 近着의 뉴스위크誌(5월23일字)는 모스크바市를 번창하는 루머시장이라고 묘사했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사망 이틀만에 공산당서기장이 된지 6개월半이 가까와오나, 그가 權座를 튼튼히 굳혔다는 평가는 받지못하고 있다. 소聯邦최고회의 간부회의장(국가元首)직은 아직 空席으로 남아있다. 올해 68세인 안드로포프는 당뇨병과 만성신장염을 앓고있다는 西方관측자들의 분석이다. 모스크바가 유언비어 都市가 안될수 없다.

▼그중한 유언비어가운데 상징적 反體制운동가 사하로프의 노르웨이移民說이 파다하게 번져 갔다. 사하로프가 이민신청을 하면 그에게 이민허가를 해줄지 모른다고 테레비로프 소련법무상이 스웨덴TV기자와의 회견에서 밝힌것이 사하로프루머의 발단이 되었다. 소련 水爆제조의 元祖로도 불리는 사하로프박사는 모스크바서 東쪽으로 5백km 떨어진 고르키에서 3년전부터 유배 생활을 보내고 있다.

▼사하로프의 노르웨이移民說이 모스크바 地下여론으로 퍼져나가는 와중에, 오스트리아의 빈대학이 사하로프박사를 초청했다. 뒤이어 사하로프부인엘레나·보나女史가 사하로프는 건강이 악화되어 죽어가고있으며, 소련을 떠나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하로프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적 뉴스가 되었다.

▼레이건미국대통령은 사하로프박사의 61회생일인 오늘을「사하로프의 날」로 선포하는 서명식을 백악관에서 가졌다. 사하로프의 딸 야퀠로비치도 참석한 이서명식을 통해 레이건대통령은 사하로프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것을 안드로포프에 촉구했다.

▼노르웨이外相은 노르웨이에 와서 살도록 초청한 것을 사하로프박사가 수락했다고 지난18일 밝혔다. 사하로프 문제가 떠들썩해지자 소련 타스통신은그가 국가기밀을 알고있으므로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비쳤다고 한다. 안드로포프는 統制와 進步의 두얼굴을 가진것으로 西方언론들은 보도했다. 그가 어느 얼굴을내어밀지는, 그의世界戰略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궁금하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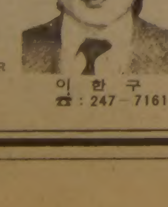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 R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운 전 학 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KANATA
컴퓨터 · 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뎅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401 Martin Grove Rd 427 Rathburn Rd The West Mall Holiday Dr Burnhamthorpe Rd The East Mall Safeway 한인식품 N

(일본의 유명가수 토론토에 오다)
고바야시사찌꼬 쇼!!
小林幸子
일자 · 1983년 6월3일(금요일)
장소 · CNE내 퀸에리자베스홀
저녁 7시 입장, 8시부터 시작
판매처 ·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전화 : 698－0633)

東北亞정세에 亂氣流

여객기被拉 한국·中共 직접對坐이후

中共、南北韓 양쪽對話채널 소외감의 日本 딴짓할지도

東北亞 국제정세에 미묘한 氣流가 흐르고 있다。

이 氣流를 몰고온 主因은 中共의 여객기 피납사건。韓·中共간의 직접 對坐에 이어 東京에서는 日本外相과 北韓의 고위관리가 악수하는 첫장면이 펼쳐졌고 北韓과 中共、中共과 미국、한국과 日本、한국과 自由中國사이에 暖流寒流가 서로 엇갈린채 새 국제潮流를 만들기세다。

被拉여객기문제의 처리과정에서 한국과 中共은상호 상대방의 國號를 사용하고「양측이 관련된 緊急사태발생시에 상호협조정신이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점을 다짐했다。지금까지 敵對的이었던 양국관계의 解氷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日本정부소식통들이 한국과 中共은 긴급시 연락窓口로 일본국제전신전화공사(KDD)를 경유하는 텔렉스回線의 개설에 합의했다고밝힌것으로 19일 보도됐다。우리 외무부에선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韓·中共양측이 긴급시에 협조정신을 발휘하기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접촉창구가 있어야한다는데는 異論의 여지가없을듯싶다。

여객기 사건을보는 일본의 태도는 미묘하기짝이없다。

현재 東京에서 열리고있는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제23차 회의에일본이 회원국인 북한대표단의 入國을 허용한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 치더라도 아베(安倍) 외상이 북한대표 李俊玉과 접촉을한것이라든지 對話를 끝낸후 『일본외상으로서 北과 접촉한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폭넓은 의미에서 등거리 외교를 했다』고 말한것은 무슨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것이 아닌가하는의심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일본은 亞阿법률자문회의개최에 휠씬 앞서 우리외무부에 북한대표단이 국제회의 참석차 입국하기때문에 비자발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회의 목적이외의 활동은 허용치 않을것이라고 사전양해를 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7일저녁 리셉션에서 아베외상은 李俊玉과의 가벼운 인사정도로 끝날수있는일을 한반도 통일문제에관해 의견을 교환하는데까지 발전시켜 당초 우리정부에 한 약속과는 다른장면이 펼쳐졌다。

이때를 전후하여 후지이(藤井宏昭) 외무성심의관이 參議院 특별위에서『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대표의入國을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한 점이란든가『일본외무성은 외교관들이 북한외교관들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접촉을허용하는 지침을 수년전 정해놓았다』는 내용의 共同통신보도는 이번 對面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신호탄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외무부관계자는『韓日간에 오해를 야기시킬수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가 해명해 왔으며 일본정부의 해명을 듣고보면 일본의 對북한정책이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신할수있다』고 대수롭지않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은 일본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韓·中共관계가 개선되려는 정세변화에 대한反射작용으로 풀이하고 있다。즉 韓·中共관계는 지금까지 일본이 중재자역할을 해왔으나 이번 中共여객기피납사건을 계기로 韓·中共접촉에 일본의 개입소지가 줄어들자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북한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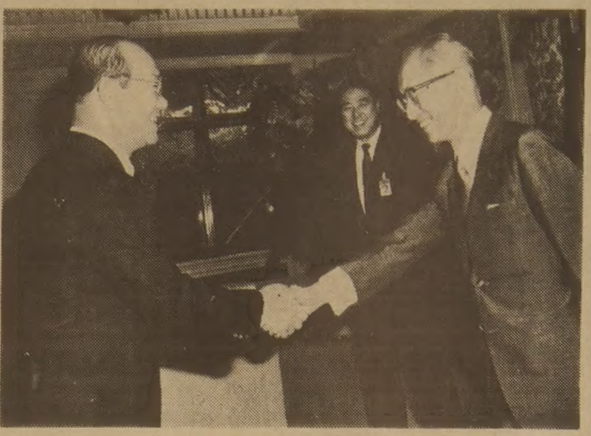
이번 中共여객기 피납사건으로 가장 得을 본 나라는 한국 미국 中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보도의 근거는 한국은 문제해결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여지를 주지않고 中共과 직접협상을 벌임으로써 中共과 非정치적 분야의 접촉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中共은 北韓의 입장을 고려、우리와의 관계개선을 기피해왔으나 이번 여객기사건은 1백명이상의 自國民 人命이 걸린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회담을 갖더라도 북한측으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할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교류의 길을 마련했다고 볼수도 있다。

한국과 중공간에 긴급시 상호협조의 터전을 만든것은 양국어선의 조난시 쌍방에 도움이 될것이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中共은 南北韓과 공히 대화채널을 가짐으로써 한반도문제에 있어 그들의 영향력을 펼수있는 간접적인힘을 얻은셈이다。



◇中共被拉여객기 문제로 韓·中共간의 직접교섭이 끝난직후 日本은 스노베 (須之部) 前외무차관을 정부특사로 派韓, 나까소네의 아세안순방등을 설명했다。사진은全대통령이 스노베특사를 접견하는모습。

비행기사건으로 대외적인 체면에 금이간 국가는 북한이지만 일본역시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을지도모른다。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주변 4大强國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일본은 미국과함께 우리의 同盟國으로서 북한을지지하는 소련과中共의연합세력에맞서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최근 스노베(須之部量三) 前 외무차관이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의 特使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나까소네수상의 아세안순방결과및 이달말 美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리는 西方선진국정상회담의 대처방안등을 설명한것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자부심의 발로라 해석할수도 있다。

그러한 일본이기 때문에 이번 비행기사건처리에서 韓·中共양측으로부터 외면당한것을 서운하게 생각할수도 있으며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과의 화해제스처를 썼는지도 모른다。

한편 한국과 自由中國과의 관계역시 미묘한 분위기를 외면할수가없다。자유중국은 여객기납치사건이 나자 이를『義擧』라고、납치범들을『義士』라고불렀다。駐韓대사관은 수차례에 걸쳐「義士」들과의 면담을 희망했으나 우리정부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또 자유중국 외교부는 金鍾坤駐中대사를 3차례나 불러 납치범들의처리에 관한우리정부의입장및李範錫외무장관이지난16일국회외무위에서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자유중국은 薛毓麒駐韓대사가 우리외무부 관계자를 만날때 외무부아닌 某호텔로 장소를 정한것에까지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외무부는 자유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납치범들의 처리는 국제협약정신과 국내법및 양국의 우호관계를 감안하고있다』면서 臺灣측의 지나친 관심은 문제해결에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

같은 논리로 이번사건은 북한과 中共과의 관계를 묘하게 만들었다。북한은 지금까지 韓·中共 접촉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中共은 북한을 무마하기위해 조만간 吳學謙외상이 平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吳외상이 平壤에서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는 알수 없으나 북한이 소련쪽으로 기우는것을 막기위해 金正日의 北京방문을 초청하는등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가져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어떻든 韓半島를 중심한 동북아의 기류가 中共여객기 피납사건으로 새방향으로 흘러가게하고 있다。

당장韓·中共관계가 크게 개선·修交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東北亞의 정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데올로기나 同盟圈보다는 實利의측면으로 변화할 조짐도 없지않을 전망이다。

아울든 한국은 새로운정세변화에 즈음하여「韓半島의 안정」을 위해 門戶開放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위해 보다 냉철하고 적극적인 對外자세를 가다듬어야 할것같다。【李在武기자】

◇부처님의 오신뜻 새기며… 이땅에 밝은 빛을 가득 비춰주소서。1천2백만불자들은 20일 등을밝혀놓고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뜻을 마음깊이 되새겼다。【서울奉恩寺에서 李昌淳기자찍음】

이땅에 慈悲를…

어제 佛紀2527년 부처님오신날

15만佛子 장엄한 提燈행렬

20일은 佛紀2527년 부처님 오신날。1천2백만 불교신도들은 이날 상오 10시 전국 7천여 불교도량에서 부처님오신날 奉祝 法要式을갖고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이땅에 가득 내리기를 기원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본산인 서울 曹溪寺에서는 3부요인과 외국사절、수천 스님·신도들이 참가한가운데 성대한 경축법요식을 봉행한뒤 부처님이 無明의 세계를 밝은 지혜로 밝히고자 이땅에 오신뜻을 되새기는 포교사들의 설법회를 가졌다。

이날 하오5시부터는 서울 汝矣島광장에서 15개 불교종단이 참여하는 연합제등 법회가 열렸으며 이어 15만불자들이 여의도—麻浦—光化門—曹溪寺까지 장엄한 제등행렬을 벌였다。

석가모니는 처음 태어날때 한손으로 하늘을、다른 한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天上天下 唯我獨尊을 외쳤다고한다。사람이 지니고있는 佛性이 이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설파하기위해서였다。세존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로소 평등한 존재임을 자각케 되었고 뭇생명을 畏敬하고 사랑으로 살리는 자비의 공덕을 배우게 되었다。

석가모니는 29세에 出家하여 佛性이 자기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大覺을 성취하였다。태어났다가 죽어가는 영원한 輪廻의 絶對的一時性에 사로잡혀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못하는 衆生에게 영롱한 지혜의 燈을 밝혀준것이다。

이같은 부처님의 큰뜻을 마음에 되새기면서이날 전국의 불자들은불법을따라사람답게살며自利와 利他行을 다짐했다。자신의 인격을 완성、참다운 면모를 찾고 成佛함이 自利요 고통받는중생을 위하여 헌신함이利他이다。부처님오신날은 세상의 無明을 씻어내는 光明의 날이고 남을위해 자비를 행하는 날이다。각자가 마음의 등불을켜는 날이다。

메아리

서울「분위기」

劉榮鍾【編輯委員】

사진엔 사실만이 담긴다。눈으로본는것、그 이상의 실감은 없다。사진의 과거는 현재에 살아 남는다。한국일보에소개되는「렌즈의 時代史」에 나온 순간들은 신문기사처럼 박진하게 이야기를 전해준다。

어제 아침에 보여준 서울의 옛모습은 지금도 추억이 아닌 현실처럼 반갑다。이런 옛서울은 이제 찾아보기어렵다。과거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간다。가깝든 멀든 옛것은 잃어가면서 변화에 밀리고 있다。

「오、피플…」미국에서 자라나 섬년을 바라볼 나이의 한국소녀가 모국에 처음와 언뜻던진 첫마디다。

청년으로 미국에 이민한 친구가 중년이 되어 돌아왔다。서울의 급변을「군의 실감」에 담으며 놀라움과 흥분에 젖어 들었다。그의 아들에게도 첫경험의 서울이 엄청났던것이었다。택시를 잡아 타며 시내를 돌아보았다。인파와 고층의「荷重」에 압도당한 느낌이든 표정이다。

그는 서울의「옛것」을 그리워하는 눈치였다。도시의 번창이 크게 늘어섰다면、그 진국의 맛은 뒷골목과 시장에 깔려 있다。

「아、서울…」빈대떡과 순대국을맛보면서 비로소 고국을 발견한듯한 가쁨이 역연하다。「물론 미국엔 한국음식이 무엇이든있다。그런데도 이런 진미는 잘 안난다」귀향의 흥분탓만은 아닐것이다。「옛맛이라야 역시 제맛이다」며 뿌리志向의 미각을 돋군다。고국의향수란 이런 것이다。

오래 살아온 부부는 서로의 모습에서 늙음을 별로 모르고 지낸다。자주대하는 친구나 이웃도 비슷하다。막상 오래 헤어졌던 친지를 만나면 갑자기 그 얼굴이 거울인양、스스로의 연륜과 자화상이 드러난다。

서울의 얼굴이 그의 눈가운데 어떻게 새겨졌는지 궁금해졌다。어딘가 아쉬움이서렸다。

인간은 최소한의 공통된「마음의구조」를 공유하고 있다한다。서울사람들은 마음의 구조가 흔들렸고 아직제대로 새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옛것을 무조건「전근대」로 몰아붙인탓도 들수있을것이다。그래서 서울「시민」은 있어도 서울「사람」은 만나기힘들다。

작고한 月灘선생을「마지막 서울사람」이라고 불렀다。서울사람다운 열정과 긍지를 지니고 살았기 때문이다。오래 된 자택이 개발에 밀려났어도 그의 문화산실인 釣水樓와 함께 그韓屋은 그대로 딴곳에 옮겨 지었다。서울사람다운 체모와 집념이 번득인다。

서울의 체취가 그래도 남아있는 곳은 시장을 꼽고 싶다。비록 껍데기는달라졌어도 흥정이 흥청거리는 풍경은 여전히 정겹다。어느 사회학자는 우리의 저자엔 「인간」이 있다고 진단한다。

외국의 슈퍼 마키트에 가면 소외감에 빠져 든다。정찰제 상품을 골라 바구니에 담고 차가운 계산기 앞에서 지불하는 사이、말 한마디 던질데가 없다。우리네 시장은 다르다。인간의 쉼이 흘러 넘친다。값을 깎고떠들다보면 목청이 높아진다。주부의가슴은 후련하다。

개화기 종로 상가엔「열립꾼」이있었다。이들은 장사꾼이 아니다。상점 앞에 서있다가 행인을 가게에 끌어 들인다。매매를 성사 시키고 구전을 받았다。워낙 입심 좋고 재빨라 한번걸려들면 실오라기라도 사야 했다。밀고 당기던 모습이 선하다。당시 서울사람의 상식은 에누리 5할가량이 당연한것으로 여겨졌다。생활의 에너지가 엿보인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찰제 확산과 정착이 시급하다지만、일반 시장엔 정찰제를 적용 안하는것이 사회학의 측면으론 좋겠다는 견해에 공감이 솟는다。생활의 편리가 인간을 배제한다면 생활美가 사라진다。서울의매력이 줄어간다면、그것은 옛것을 거부하면서 분위기와 개성을 상실해가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은「관계」속에서 산다。가족과남과 사회라는 공간이 있다。역사의식이란 시간이 규제한다。서울은 역사의식속에 살아가는 서울사람의 도시다。서울의 분위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다듬어가야 한다는데 생각이 닿는다。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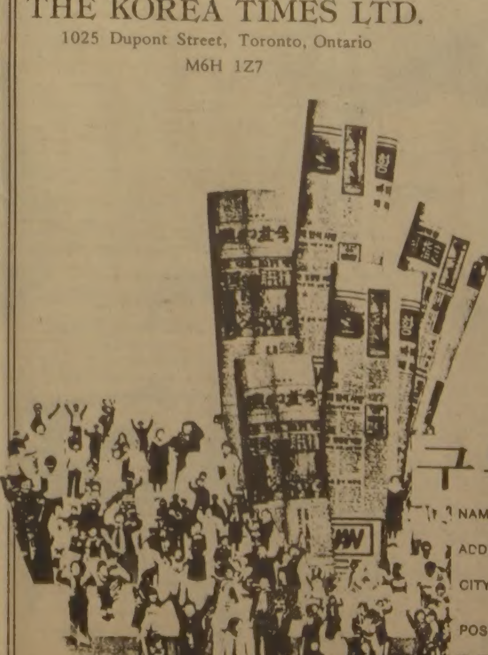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열에 아홉

『한국일보』는 해외일간신문 보급의 창시자로서 가장 깊은역사와 폭넓은 소식망을 갖추고 고국의 생생한 뉴스와 교포생활에 필요한 뉴스를 가장 신속히 전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구독 신청서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구독회망신문☐한국일보(주간한국 포함)

구독료(선불)
한국일보 년 $110.00 반년 $55.00

ET앞지른 새流行… 한국上陸

「요술문어」붐

문방구마다 "없어서 못판다" 유리창 더럽혀 새골칫거리

「요술문어」또는「요술거미」등으로 불리는 어린이용 월 워커(Wall Walker·벽타기)장난감이우리나라에 상륙, E T의 인기를 앞질러 나가고있다。

흡착력이 강한 고무로만들어져 유리창이고 벽이고간에 던지기만 하면 한동안 생각이라도 하는듯 움츠렸다가 슬금슬금 기어내려오는 월 워커는 개당2백원에서 7백원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지1개월사이에 불티가 나 완구점마다 월 워커 확보에 아우성이다。

업계에 의하면 월 워커는 지난해 가을 대만에서 처음 만들어져 미국으로수출했으나 재질(材質)에유해성분이 검출돼 수출이금지되자 일본에서 재빨리재질을 바꾸어 만들어 수출,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다는 것。

월워커는 미국시장에서 루빅스큐브가 등장 했을때 만큼이나 큰인기를끌어 한사람이 5~6개씩 새깔을 맞춰 사가기도해 1천만개 이상이나 팔렸다는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달전부터 Y·M등 10여개의군소메이커에서 이를 생산해내고있는데 M회사의 경우 하루 1만여개, S회사에서 3천여개등을 만들어 완구도매상을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20일 清涼里 시장에는 물건이 동이났고 변두리문방구나 완구점에서는 웃돈을주고 물건을 구입해 올정도。

서울城北區鍾岩2洞K문방구점 주인 金二洙씨(43)는『월 워커 10개들이 1상자를 사다 놓았다가 그날로 다팔려 다시물건을 구입하려갔으나 동이 났었다』고 말했다。

金씨에 의하면 월 워커는 8개의다리와 몸통등전체가 흡착력이강해 살아움직이는듯한 동작이 호기심을자극,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는것같다는것.

또 아파트촌인 서울江南區狎鷗亭洞 H상가에 있는 N완구점에서도 지난 일요일에만 1백50개나팔렸다。

개당 2백~7백원까지 팔리는 월 워커는 어린이들이 서로 누구것이 먼저 기어내려오나 시합을 하며 노는 장난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 짓궂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시내버스 창문에 던졌다가 여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교실이나 방에 달린 거울에다 마구 장난을 쳐 거울을 더럽혀 꾸중을 듣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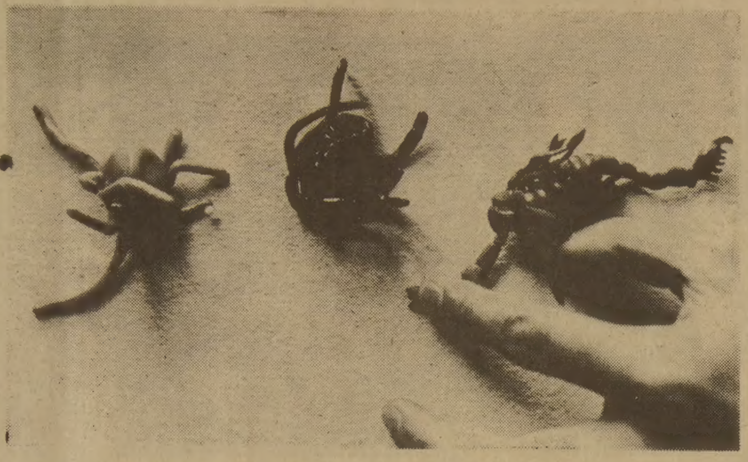
남산국교 김성은양(8)은 반친구들 대부분이 2~3개씩 사서 학교에까지 갖고와 장난을 치다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 워커는 거울등에 한번붙기만하면 얼룩을 남기는탓에 부모들에겐 골칫거리。

서울城東區中谷洞에 사는 주부鄭然浩씨(38)는『이들 장난감은 약간의먼지만 묻어도 비누로닦아주어야 하기때문에 귀찮은데다 거울·유리등에 얼룩을 남겨 성가시다』며『가끔 코를 찌르는 기름냄새가 나는 불량품도있어 어린이들이 갖고 놀아도 해롭지않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ET에이어 외국에서 인기를 끈 장난감이 무라면 국내 메이커들이 무분별 양산해내고있는 풍토에대해 일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ㅇㅇ국교 6년 담임인 한 여교사는『ET나 월 워커나 모두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고방식과는 걸맞지 않은 장난감』이라고 지적, 외국에서 유행하고있는 장난감이라는 선입관이 어린이들에게 그릇되게 주입되어있는것 같다고 우려했다。【朴珍列기자】



◇최근들어 ET붐을 누르고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월워커。대만에서 창안했으나 세계적인 히트는 일본인에의해 이루어졌다는 외국장난감이다。

"의사過失「구체적立證」안돼도 手術후유증 賠償해야"

서울高法, 원심깨고 病院에敗訴판결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金學萬 부장판사)는 20일 金南楨씨(仁川市南區朱安洞144)등 일가족 4명이 서울대학병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수술후유증이 생겼을때 의사의 잘못이 구체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아도 의사의 과실이 아니면 그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개연성의입증만 있으면 병원측이 손해배상 책임을져야한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깨고『서울대학병원은 원고들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金씨는 지난78년6월 지병인 발측성안면경련증치료를위해 서울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교수집도로 수술을 받았으나 얼마후 후유증으로 양팔과 다리에 부전마비증세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팔·다리부전마비는 방측성 안면경련증의 일반적인 후유증이아니며 金씨가 이러한 후유증이 야기될수있는 특이체질이란 증명도없어 의사가 수술중 뇌나 뇌혈관에 손상을가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원고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海外근무자 退職金몰수」회사約定 근로기준법위배 "無效"

서울民事지법 判決

해외근무중 회사의 인사발령을 어기고 퇴직하는경우 퇴직금의 몰수는 물론 출국비용등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맺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나 왔다。

서울 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陳成奎부장판사)는 20일 구자원씨(서울江西區新亭洞30)가 주식회사 大宇를상대로낸 퇴직금등 청구소송에서『회사가 해외주재원을 파견하면서 현지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퇴직금지급거부등의 특별약관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부당하게강요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밝히고『피고회사는 원고 구씨에게 퇴직금과 해외주재적립금등 8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씨는 76년 大宇에 입사, 78년12월 미국 뉴저지주지점 주재원으로 출국해 근무해오다가 지난해 2월1일 본국으로 귀임하라는 회사의 인사조치에 불복, 사직했는데 회사측이 퇴직금등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大宇측은『구씨와는 출국전에「해외근무중 임의로 사직하거나 회사의 전보·복귀조치등의 명령을 위배행을때는 회사가 퇴직금지급을 거부해도 이를 감수하며 해외교육비와 여비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한다」고 약정했으므로 퇴직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뿐 아니라 설사 지급한다해도 해외근무수당적립금중 파견경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후불적노임의 성격을 지니고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마음대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수 없는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이며 또 구씨가 멋대로 퇴직하는경우 파견경비를 반환키로한 약정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용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밝히고『大宇는 구씨가 청구한 퇴직금과 해외근무수당적립금전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救急환자 이송 消防업무로 호텔·市場등엔 請願소방원

내무부, 法개정案

내무부는 20일 구급환자 이송업무를 소방업무에 흡수하고 호텔·시장등에청원소방원을 두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한 소방법 개정안을마련, 오는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했다。주요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지원업무로돼있던 구급환자 이송업무를 서울등 10개지역에서 소방기본업무로 흡수키로했으며 고층빌딩·시장·공장등 대형화재가일어날 수있는곳에는 화재예방과 초기진압을위해 청원소방원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원소방제는 현재 1백26개소에 5백47명이 배치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데 성과가좋아 법적근거를 마련하게된것이다。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休日 열차追突 35명重輕傷

客車 4량大破… 나들이길 큰혼잡

어제아침 교외선 城北驛구내서 誘導잘못

20일상오8시9분께 서울道峰區月溪2洞298앞 교외선(城北역북쪽0·5㎞지점)에서 新灘里를 출발, 城北역으로 들어가던 804호 경원선열차(기관사 車廷國·44)가 입환작업중이던 서울자동차 사무소소속844호 교외선열차(기관사 高鎭錫·28)를 추돌, 804열차 승객35명이 중경상을 입고 두열차의 객차4량이 크게 부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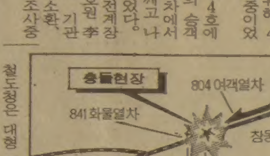
부상자가운데 崔道順양(22·회사원·경기楊州郡州內面南放里139의2)등 중상자 16명은 서울국립병원등 4개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나머지 金二國씨(20·서울道峰區倉1洞188)등 19명은 응급치료를받고 귀가했다。

이날사고는 844호열차 기관사高씨가 城北역운전계장 尹吉遠씨(42)로부터 작업지시를받고 입환작업을하던중 기관고장을 일으켜 멈춰있는사이 운전계장 尹씨가 倉洞역에서 城北역을향해 출발하려던 804호열차의 진입을 무리하게 허가해 일어났다。

844호열차는 이날 6번선로에서 대기하다 상오8시30분 승객을 태우고 교외선을 출발하기위해 4번선로로 입환작업중이었다。

사고가 나자 804호에 타고있던 3백여명의 승객들은 서로 먼저 열차에서 내리려고 유리창을깨고 나오는등 큰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城北역 운전계장 尹씨와 선로개폐신호원 李錫雨씨(46)두열차 기관사등 관련자6명을 소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철도청은 대형 크레인으로 사고 동차를 선로에서 빼내 상오11시께 열차운행을 정상화시켰으나 부처님 오신날 휴일을맞아 서울근교 유원지등으로 나들이를 나섰던 2천여명의 시민들이 城北역에서 발이묶여 큰혼잡을 빚었다。

◇新灘里에서 城北역으로 진입하던 京元선열차가 역구내에서 입환작업중이던 교외선열차와 추돌, 35명의 중경상자를내고 객차4량이 크게 부서졌다。

警察이 총쏴檢擧

자가용차 훔쳐타고가다 檢問불응

【蔚山】蔚山경찰서는 20일 훔친 자가용차를 몰고가다 검문에불응, 경찰의 총격을받고 붙잡힌 김영천씨(25·大邱市中區東仁洞1街342)를 절도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17일 서울江南區瑞草洞 앞길에서 서울1나9421호 포니를 애인 조금복씨(28)와 함께 훔쳐타고 부산으로 달아나 히로뽕주사를 맞아가며 환각상태에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19일하오3시20분께 蔚山市 無去洞 신복검문소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검문을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이 발사한 총탄에 애인 조씨가 다리에 부상당하는 바람에 검거됐는데 차안에는 히로뽕30g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조직과 관련있는것으로보고 수사중이다。【聯】

七寶寺 어린이合唱團 청와대 방문·祝歌

대한불교曹溪宗산하七寶寺(주지姜昔珠) 어린이합창단55명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20일하오 청와대를방문, 비서실앞 정원에서 대통령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태평함을 바라는 축가를부르고 기원무를 납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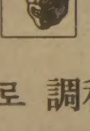
自然美

巨木이식베테랑 조경사 金義淳씨

"지나친「人工」으로 調和 잃지말아야"

서울시는 지금『푸른 서울가꾸기」를 한창 서두르고 있다. 이를위해 시골의 볼품있는 큰나무를 서울로 옮겨심는「巨樹의 서울신접 살림작전」까지 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9일에 있었던 光陵임업시험장의 40년생전나무 5그루의 서울이사를 총지휘한 조경사 金義淳씨(42·사진·본보 5월12일자)는 옮겨 심은 나무의 가지를 쳐주고 줄기에 흙을 발라주는등 뒷관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름한철 해수욕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다。



그는 벌써 30년째 이처럼 구리빛 얼굴을 하고 살아왔다. 12살때 시 양묘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를따라 다니던 중학교도 그만두고 나무를 돌보기 시작했다. 나무를 척보면 나이·생장정도, 토질등을 대강 알아맞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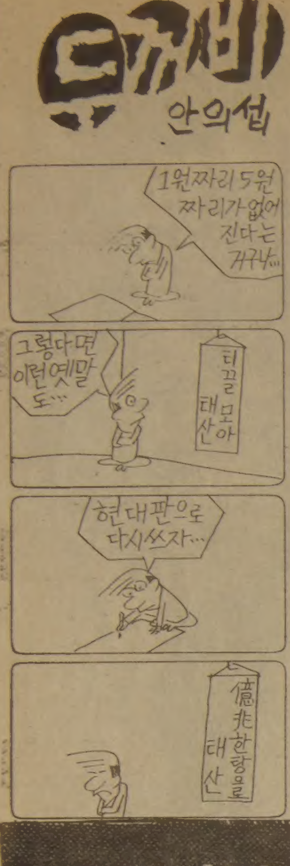
그의 주특기는 큰나무 80㎝이상되는 큰나무를 옮겨심는것。15년전 群山역앞에 서있던 40년생 향나무 3백20그루를 서울禾谷洞으로 옮긴것을 비롯, 西小門 서울시립관의 80㎝급기의 은행나무, 장충단공원의 은행나무·남산소나무등 지금까지 큰나무만 5천그루를 이식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것은 활착률이 낮아 이식이 불가능한 나무로 알려졌던 소나무를 옮겨심은 79년부터. 이미 1천80그루를 이식했다。

『사실 나무를 옮겨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연그대로 자라도록 두는 것이 좋지요』

金씨는 생명이 있는 나무를 이리저리 옮기는것을 조경담당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나무란다. 조금만 정성을 들여 분을 크게뜨면 1년이면 거뜬히 자리잡는데, 이를 소홀히해 4~5년골골거리게 만든다는 안타까움도짓들어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조경방식은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읍니다. 요즘은 인공미가 지나치게 강조되고있군요。자연미처럼 좋은게 어디 있읍니까』가로수야 어쩔수 없지만 鍾路등에 쥐똥나무를 고르게 심어 반듯이 각을 뜨는 인위적 조경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다。【徐華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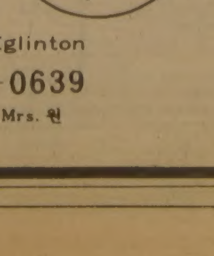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 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타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명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중계 김담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싱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경험있는 남·녀 동력재봉틀(Power Sewing Machine) 작동하실분 구함.
전화 : 533-7172

-자개 기술자 구함
(Mother of Pearl Technician)
-Abalone Shell Insetter
Antique Chest for Korean.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Mrs.김

조그만 가게 맡아서 하실 분 구함.
전화 : 466-9864 Mr. 리

도넛숍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Full or Part Time
861-1521(가게), 222-3877(집)

풀타임 웨이트레스 급구함
KATSURA 일본식당
전화 : 960-9035 Mr. Honda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유경험자. 당일 페이.
전화 : 466-9864. Mr. 리

Store 경험있는 여자 Cashier 급구함.
전화 : 532-9638
(저녁 9시 이후 전화 요망)

도넛숍에서 밤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끝.
전화 : 282-0634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학생 Part Time Store 헬퍼구함.
(Kipling & Albion 지역) 오후부터 시작.
전화 : 741-7692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매 매

큰 몰안에 있는 선물센타(Gift Shop) 급매.
리스 1992년까지. 여자 혼자 운영가능.
전화 : 633-7479

특별 Dieter's Tea 판매중.
중국처방, 화공약품 가미않한 자연륙차.
전화 : 656-8080 (체중감량 속효)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멀안에 있는 Naturalfood No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멀.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멀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텀숍급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2층 벽돌집(방이 6개)
Only $59,900
Call Gino 전화 : 654-1010

1에어콘디쇼너 급매.
35,000 BTU Window Unit. 4 year-old.
4 Food 카드탭 매매. 전화 : 763-1358.

---

2 베드룸 딸린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3226 Eglinton Ave. E. 전화 : 261-0739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도넛숍 팝니다.
전화 : 1-666-1164(오후6시 이후) 1-668-4073

후렌차이스 스토아 급매.
주매상 $7,500. 권리금 $19,500+스탁.
캐쉬원함. 전화 : 223-4748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5,5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급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딸린 건물매매. Asking $259,0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전망 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Mall 안에 있는 Fast Food
아스킹 $22,000. 패트릭·호 부동산
Call Jack 전화 : 593-8967, 245-2836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전망 좋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세일.
새로 셋압한 스토아임.
40스토아중 5스토아 오픈된 컴플렉스 몰에 위치.
(Yonge & Orchard Heights Blvd. in Aurora)
스토아를 새로 셋압하시고 싶은 분께 최적합.
전화 : 742-0412, 1-727-5902

드라이크리닝(Depot) 급매.
전화 : 781-6774(B)
746-0981(R)

Grocery Store Business 급매(좋은 전망)
Asking $8,900. Call. Edmund.
Jony Jrustwell Realty Inc. 596-8170

Small Plaza 급매. Variety Store, Pizza, Video Shop 현수입 3만2천4백. 15 Miles Toronto 북쪽
전화 : 1-519-941-8318(5시 이후)

스토아 급매. Asking $39,900+Stock
Kingston Rd.×Markham(Scaboro.)
전화 : 267-2292

Tuck Shop 팝니다. (오크빌지역)
연매상 17만불. 권리금 $2만9천 + 스탁.
전화 : 844-5719(오전 10:30이전, 또는 오후8시이후)

꽃및 잡화 취급가게(미시사가 초입)
리스 : 3년+5년. 아스킹 $17,000+스탁
전화 : 624-7597 Mr.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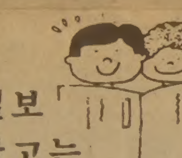
일년 사용한 Taylor Slush Machine 급매.
(신품 1만불함) 현재 $2,500에 판매함.
전화 : 284-9325

그로서리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 + Lotto. 주매상 $1만1천 + $1,300(Lotto). Asking $9만 + 스탁(현찰8만불).
No meat, no delivery. 1-514-364-4627 Mr.송

Gift Store 급매.
Bloor & Bathurst 지역.
전화 : 536-6590

아파트. 가게딸린 빌딩 팝니다.
아주 바쁜 지역. 전화 : 654-1010
Security Real Estate. Call Mike Cosco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살림집 이층에 있음. 주매상 $3,500~$3,800
전화 : 243-2337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문의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31-5351
499-3893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